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정 소 우 교수지도

석사학위청구논문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읽기 영역분석

- 담화 구조 유형을 중심으로 -

2011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영어교육전공

김 지 선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읽기 영역분석  
- 담화 구조 유형을 중심으로 -

정 소 우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영어교육전공  
김 지 선

# 인 준 서

김지선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논문개요

본 논문은 7차 교육과정에 따른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읽기 영역의 여러 가지 특성 중 담화 구조 유형을 중심으로 소재와 문제 유형, 이원 목적의 내용 영역과 행동 영역에 대해 분석하기 위하여 총 180개 지문, 198개 문항을 살펴보았다.

담화 구조 유형은 Carrell(1984), Hillman(1990)과 Langan, Bader, Anton(1992)이 분류한 기준을 중심으로 하여 시간적 순서, 열거, 원인과 결과, 비교와 대조, 정의와 예시, 그리고 문제해결의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또 글의 소재는 제 7차 고등학교 외국어(영어) 교육과정(교육부, 1997)에서 제시한 소재 내용에 의거하여 17가지 소재 내용으로 분류하였으며, 문제 유형은 문법, 어휘, 읽기, 쓰기 네 영역의 총 19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원 목적은 설명문, 논설문, 실용/기타 등 글의 종류에 따른 내용 영역과 어휘, 문법성 판단력, 사실적 이해력, 추론적 이해력, 종합적 이해력, 적용력으로 구분되는 평가 목적에 따른 행동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에 따른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6가지 담화 구조 유형 중 열거 유형이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소재 내용에 있어서는 ‘교양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 가장 많이 출제되었다. 또한 19가지 문제 유형 중에는 ‘빈칸 추론’ 유형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이원 목적의 내용 영역은 논설문, 설명문, 실용/기타의 순서로 많이 출제되었고, 행동 영역은 추론적 이해력을 측정하는 문항이 가장 많았다.

위와 같이 특정한 담화 유형이나 소재, 문제 유형 등이 다른 것들에 비해 많이 사용되었다는 결과는 학습자들의 실제적 언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보다 다양한 내용의 문제들이 고르게 출제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

다. 그러나 연도에 따른 편차는 크지 않아 비교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일관성은 수험생들의 혼란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2005년에서 2010년까지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읽기 영역에서 나타난 6가지 담화 구조 유형에 대해 보다 자세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 습관, 건강, 운동 등에 관한 내용’과 ‘정서 순화와 합리적 사고력 배양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가장 많이 사용된 문제해결 담화 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5가지 담화 구조 유형에서 모두 ‘교양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둘째, 문제 유형에 있어서는 시간적 순서 담화 유형과 열거 담화 유형에서 ‘내용 일치 파악’ 문제 유형이 가장 많이 나타난 것에 비해, 다른 4가지 담화 구조 유형에서는 ‘빈칸 추론’ 문제 유형이 가장 많이 출제되었다. 셋째, 내용 영역 분석 결과, 대부분의 담화 구조 유형에서는 설명문과 논설문이 고르게 많이 나타났지만, 시간적 순서 담화 유형에서는 실용/기타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넷째, 시간적 순서 담화 유형은 행동 영역의 종합적 이해력을 측정하는 문항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나, 나머지 5가지 담화 구조 유형에서는 추론적 이해력을 측정하는 문항이 가장 높은 빈도로 출제되었다.

위의 결과와 같이 특정 담화 구조 유형에 따라 주로 나타나는 소재나 문제 유형, 글의 종류, 주요 평가 영역이 다르다는 것은 담화 구조에 대한 이해가 독해 능력의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문의 내용이나 문항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보다 명확하게 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좀 더 활발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목 차

## 논문 개요

### I.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	---

### II. 이론적 배경

#### 2.1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영역

2.1.1 성격 .....	3
2.1.2 평가목표 .....	4
2.1.3 학습방법 .....	6

#### 2.2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읽기 영역의 구성과 성격

2.2.1 구성 .....	7
2.2.2 성격 .....	7
2.2.3 학습방법 .....	8

#### 2.3 담화 구조 유형 분류

2.3.1 Carrell의 분류 .....	11
2.3.2 Hillman의 분류 .....	13
2.3.3 Langan, Bader, Anton의 분류 .....	15

#### 2.4 담화 구조의 이해와 독해와의 관계 .....

17
----

### III.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	19
3.2 분석기준	

3.2.1 담화 구조 유형 .....	19
3.2.2 소재 .....	27
3.2.3 문제 유형 .....	29
3.2.4 이원 목적	
1) 내용 영역에 따른 분류 .....	30
2) 행동 영역에 따른 분류 .....	31
IV. 연구 결과 및 논의	
4.1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읽기 영역 분석	
4.1.1 담화 구조 유형에 따른 분석 결과 .....	32
4.1.2 소재에 따른 분석 결과 .....	41
4.1.3 문제 유형에 따른 분석 결과 .....	46
4.1.4 이원 목적에 따른 분석 결과	
1) 내용 영역 .....	50
2) 행동 영역 .....	51
3) 내용 영역 및 행동 영역 .....	53
4.2 담화 구조 유형에 따른 소재 및 문제 유형과 이원 목적 분석	
4.2.1 시간적 순서 담화 유형 .....	57
4.2.2 열거 담화 유형 .....	61
4.2.3 원인과 결과 담화 유형 .....	65
4.2.4 비교와 대조 담화 유형 .....	70
4.2.5 정의와 예시 담화 유형 .....	74
4.2.6 문제해결 담화 유형 .....	78
V. 결론 및 제언 .....	85

참 고 문 헌

ABSTRACT

## 표 목 차

<표 1> 담화 구조 유형에 따른 분석 결과 .....	32
<표 2> 소재에 따른 분석 결과 .....	42
<표 3> 문제 유형에 따른 분석 결과 .....	46
<표 4> 이원 목적의 내용 영역에 따른 분석 결과 .....	50
<표 5> 이원 목적의 행동 영역에 따른 분석 결과 .....	52
<표 6> 내용 영역 및 행동 영역에 따른 분석 결과 .....	54
<표 7> 시간적 순서 담화 유형의 소재 분석 .....	57
<표 8> 시간적 순서 담화 유형의 문제 유형 분석 .....	58
<표 9> 시간적 순서 담화 유형의 내용 영역 분석 .....	59
<표 10> 시간적 순서 담화 유형의 행동 영역 분석 .....	60
<표 11> 열거 담화 유형의 소재 분석 .....	61
<표 12> 열거 담화 유형의 문제 유형 분석 .....	63
<표 13> 열거 담화 유형의 내용 영역 분석 .....	64
<표 14> 열거 담화 유형의 행동 영역 분석 .....	65
<표 15> 원인과 결과 담화 유형의 소재 분석 .....	66
<표 16> 원인과 결과 담화 유형의 문제 유형 분석 .....	67
<표 17> 원인과 결과 담화 유형의 내용 영역 분석 .....	68
<표 18> 원인과 결과 담화 유형의 행동 영역 분석 .....	69
<표 19> 비교와 대조 담화 유형의 소재 분석 .....	70
<표 20> 비교와 대조 담화 유형의 문제 유형 분석 .....	71
<표 21> 비교와 대조 담화 유형의 내용 영역 분석 .....	73
<표 22> 비교와 대조 담화 유형의 행동 영역 분석 .....	74
<표 23> 정의와 예시 담화 유형의 소재 분석 .....	75
<표 24> 정의와 예시 담화 유형의 문제 유형 분석 .....	76
<표 25> 정의와 예시 담화 유형의 내용 영역 분석 .....	77
<표 26> 정의와 예시 담화 유형의 행동 영역 분석 .....	78

<표 27> 문제해결 담화 유형의 소재 분석 .....	79
<표 28> 문제해결 담화 유형의 문제 유형 분석 .....	81
<표 29> 문제해결 담화 유형의 내용 영역 분석 .....	83
<표 30> 문제해결 담화 유형의 행동 영역 분석 .....	83

# I.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994년 처음 시행된 이후부터 줄곧 대학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여왔다. 따라서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나 그들을 가르치는 교사, 그리고 학부모까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져왔다. 학생들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학습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먼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 방향과 문항의 유형 등을 따져보고 그에 맞춰 학습 방향을 설정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많아졌으며, 이러한 경향은 고등학교에서 실제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까지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특히 외국어(영어) 영역은 현대 사회에서 점차 그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2000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되어 2005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7차 교육과정은 의사소통 기능을 중시하여 보다 다양하고 효율적인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문제의 유형이나 배점 등에서 변화가 일어났으며, 단순히 문법에 대한 지식이나 암기에 의한 단답형의 문항들 보다는 좀 더 학습자들의 인지력과 사고력을 중시하여 종합적인 능력을 요구하는 문항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영역에서 자주 사용되는 어휘나 소재, 문장 구조 등 여러 부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뚜렷해졌다. 또 많은 부분에서 다양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연구들은 변화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제 유형이나 소재에 대한 분류(김혁린, 2009), 효과적인 영어 독해지도를 위한 독해 문항 분

석(조성권, 2007), 문항의 유형별 독해 전략 분석(오정은, 2008), 학년별 성취 기준에 따른 문항 분석(어경선, 2010)등이 있다. 이렇듯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나타나는 소재나 독해 전략, 성취기준, 문제 유형 등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담화 구조 유형에 대한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담화 구조에 대한 분석이나 연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방상욱(1999)은 1994년 최초의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부터 1999년까지 6년 동안의 시험에서 나타난 담화 구조에 대해 연구하였고, 이은주(2004)는 2004년 시행된 1, 2차 모의 평가와 실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담화 유형에 대해 분석, 비교하였다. 그러나 위의 선행연구들은 현재의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기 이전의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분석이라는 점에서 지금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담화 구조 유형을 중심으로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읽기 영역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사용된 소재 및 문제 유형, 이원 목적의 내용 영역과 행동 영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이들이 얼마나 균형 있게 출제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한 학습자들의 담화 구조 유형에 대한 이해와 학습은 보다 효과적인 독해 능력의 향상뿐만 아니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결과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대된다.

## Ⅱ. 이론적 배경

### 2.1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영역

#### 2.1.1 성격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함으로써 대학에서의 학생 선발 시 주요 전형 자료로 사용되고 있는 전국 수준의 시험이다.

외국어(영어) 영역 시험은 대학 수학에 필요한 영어 사용 능력을 측정하고 동시에 고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에 명시된 영어 교육 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는 시험이다. 이러한 개념에 따라 외국어(영어) 영역의 시험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9)

-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영어 대화나 담화를 듣고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
- 범교과적인 다양한 지문의 요지나 대의, 제목, 주장, 글의 분위기 등을 추론하는 능력을 평가
- 대화나 담화 또는 단락의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
- 문맥에 맞는 자연스러운 영어 표현 능력의 간접적 평가
- 글의 구조 이해 및 요약 능력 등을 측정함으로써 쓰기 능력을 간접적으로 평가
- 문장의 논리적 흐름에 입각하여 지문에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는 능력을 평가
- 의사소통 기능 중심의 유창성 및 영어 사용의 정확성을 동시에 강조

## 2.1.2 평가목표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9)에 따르면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영역은 학생의 능력, 진로, 필요, 흥미를 중시하는 제 7차 외국어(영어)과 교육과정의 목표, 내용 및 수준에 따라 대화, 담화 및 문단에서의 의사소통 기능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측정하되, 대학에서 수학하는 데 필요한 영어 사용 능력을 측정하는 것을 평가목표로 한다. 또 영어와 관련된 단편적 지식의 측정을 지양하고 영어를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며, 출제범위를 공통영어 수준에서 심화선택 수준으로 확대함으로써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달성정도를 성취기준에 좀 더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출제의 기본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각 문항의 소재는 범교과적 내용으로 하며, 다양한 종류의 글과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문의 소재를 균등하게 배열하고, 각 문항의 지문은 수험생의 배경지식과 부합되는 상황에 기초하거나 배경지식과 언어 능력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해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듣기는 원어민의 대화, 담화를 듣고 이해하는 능력을 직접 측정하고, 말하기는 불완전 대화, 담화를 듣고 적절한 의사소통 기능을 적용하여 이를 완성하는 능력을 간접적으로 측정한다. 또한 읽기는 배경지식 및 글의 단서를 활용하여 의미를 이해하는 상호작용적 독해 능력을 직접 측정하고, 쓰기는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문장으로 요약하거나 문단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간접적으로 측정한다.

즉, 외국어(영어) 영역의 평가 목표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에서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데 필요한 어휘 및 문법성 판단력, 사실적 이해력, 추론적 이해력, 종합적 이해력, 적용력을 측정하는 데 있다.

1) 어휘

대학 수학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영어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 및 문맥의 단서를 활용하여 유추해 낼 수 있는 사고력을 측정한다.

2) 문법성 판단력

기본적인 영어 문장 구조 및 규칙을 습득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며, 문장 단위 이상인 담화 및 문단의 전체 의미나 문장 사이의 의미적 관련성을 고려한 문법성 판단 능력을 측정한다.

3) 사실적 이해력

대화, 담화, 문단의 핵심 내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즉, 말이나 글의 내용을 추론·분석·비판하기보다는 진술된 내용을 사실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4) 추론적 이해력

대화, 담화, 문단에 표현된 내용의 사실적 이해에 근거하여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논리적으로 추론해 낼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다. 구체적으로 지칭 추론, 의도적으로 삭제한 내용이나 표현의 추론, 말이나 글의 요지, 제목, 주장 등의 추론 능력을 측정한다.

5) 종합적 이해력

대화, 담화, 문단의 표현·내용·진개방식 등을 개별적 언어 요소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다. 또한 말이나 글의 종류, 분위기, 목적, 어조, 태도, 느낌 파악하기 등의 이해력을 측정한다.

## 6) 적용력

대화, 담화, 문단의 내용을 이해하여 의사소통 상황에 알맞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다. 특히 듣기나 읽기 자료를 통해 이해한 바를 말하거나 쓰기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언어 사용 능력을 간접적으로 측정한다.

### 2.1.3 학습방법

출제되는 내용은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을 반영하므로 학교 수업에 충실히 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선생님의 안내를 받아 교과서외의 다양한 영어 자료에 접하는 것도 시험 준비에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9)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영역의 학습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1) 다양한 장르의 지문을 읽고 세부사항을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과 전체적인 대의, 주장 등을 추론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 (2) 대화나 서술문을 듣고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추론하고 동시에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 (3) 대화나 서술문을 듣고 화자가 할 말을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추론, 표현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 (4) 문장과 문장의 논리적 흐름을 파악하는 능력, 문단 내용을 문장으로 요약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 (5) 지문에서 생략된 내용을 글의 내용과 흐름을 참조하여 추론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 2.2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읽기 영역의 구성과 성격

### 2.2.1 구성

수능 외국어(영어) 영역은 듣기 영역 17개 문항과 읽기 영역 33개의 총 50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범교과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출제하는 것을 범위로 정하고 있다.

읽기 영역은 어휘력을 측정하는 문항과 문법성을 판단하는 문항을 비롯하여 장문의 이해력을 측정하는 문항, 추론적 능력을 요구하는 문항, 그리고 간접적인 쓰기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 등으로 구성된다.

### 2.2.2 성격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4)에 따르면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읽기 영역은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진다.

첫째, 지문은 실제적(authentic)인 것이어야 한다. 시험 문제를 만들기 위해 자작된 지문은 되도록 피하고, 언어 표현이 생생하고 글의 전개가 자연스러운 지문이 활용되어야 한다.

둘째, 문항의 난이도가 요구하는 만큼의 문제 해결의 단서가 주어져야 한다. 문항 해결의 실마리는 기계적인 문제 해결 전략의 사용에 의해 학생의 주의가 두드러지는 곳, 즉 지문의 처음과 끝 부분에는 가급적 오지 않아야 한다.

셋째, 지나치게 긴 문장이나 연속적으로 3번(3-depth) 이상의 삽입된 부분(embedding)이 나오는 문장은 피해야 하며, 의미가 애매하거나 문맥상으로

도 뜻이 분명하지 않은 중의적인 표현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넷째, 특정 수험생들에게 유리한 내용이 나오는 글이거나 글을 이해하는데 특정한 문화적 배경지식이 필요한 글은 지문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 2.2.3 학습방법

#### 1) 읽기

단문이나 장문을 읽고 세부 사항을 파악하는 능력과 전체적인 대의를 추론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다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9)에서 제시하고 있는 읽기 영역에 대한 학습방법이다.

- (1) 제시된 지문을 읽고 그 내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해하도록 한다.
- (2) 주어진 지문에 나타난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다양한 각도에서 지문을 분석한다. (예: 주제는 무엇인가?, 등장인물은 누구인가?, 필자의 심정은 어떠한가?, 행동의 이유는 무엇인가?, 글의 소재는 무엇인가?, 글의 전개 방식은 어떠한가?, 모르는 어휘 중에서 문맥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어휘는 어느 정도인가? 등)
- (3) 글의 전체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문장과 문장 사이의 연결 매개체로서 사용되는 대명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각 문장에서 등장하는 대명사(혹은 지칭어구)가 가리키는 대상을 분명히 파악하면 글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 (4) 글의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분위기나 심경을 나타내는 어휘를 익히고 글을 읽으면서 주인공이나 사건 및 배경에 대한 묘사를 살펴 보도록 한다. 또 한 지문에 제시된 특정 단어만으로 성급하게 추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5) 지문의 일부가 생략된 부분을 완성하는 문항의 경우(빈칸 완성 유형) 글을 정독하고 파악한 주제나 요지와 관련하여 그 내용을 추론하도록 한다.
- (6) 문장과 문장의 논리적인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요한 접속사나 연결 어구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도움이 된다.
- (7) 주제, 요지, 제목 등 글의 대의를 추론하는 문항의 경우 문단의 첫 문장을 읽으면서 추측하되 끝까지 정독을 하면서 처음부터 추측했던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 (8) 긴 글을 빨리 읽고 전체적인 대의와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공통적인 요소를 지닌 단락을 비교·분석해서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 (9) 지문에서 다루는 소재는 과학, 음악, 문학, 실용문, 시사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분포되어 있다. 따라서 평소에 다양한 소재의 글을 읽고 이해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 2) 쓰기

문장과 문장의 논리적 흐름을 파악하는 능력, 문단 내용을 문장으로 요약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영역에서 쓰기 문항은 읽기 문항의 형태로 출제되어 간접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9)에서 제시하는 쓰기 영역에 대한 학습방법이다.

- (1) 문단의 내용이 논리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특히 글의 흐름이 단절되거나 전환되는 부분에 주의하도록 한다.
- (2) 읽기와 마찬가지로 주요한 접속사와 연결 어구, 지시어, 대명사 등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글의 흐름을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3) 시간의 흐름, 내용의 일관성, 글의 전개방식에 따라 불필요한 정보나 문장을 삭제하는 연습과 필요한 정보와 문장을 추가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 (4) 문단의 주제나 요지 등 대의를 파악하여 영어로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 3) 어휘

기본적인 어휘 학습의 토대 위에서 문맥을 통해 어휘의 의미를 유추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9)에서 제시하는 어휘 영역의 학습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기본적인 어휘 학습을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 충분한 어휘 학습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문맥을 통해 어휘의 의미를 유추하는 것이 어렵다.
- (2) 단문이나 장문을 읽을 때 모르는 어휘가 많지 않을 때에는 사전을 찾기 보다는 문맥 속에서 그 의미를 유추해 보도록 한다. 그 과정을 거쳐서 글을 다 읽은 후에는 그 의미를 사전에서 확인하여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 4) 문법성 판단력

문장 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문단의 전체 의미를 고려하여 문법성을 판단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다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9)에서 제시하는 문법 영역의 학습방법이다.

- (1) 글의 전체 맥락 속에서 어법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 (2) 학교 수업 시간에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는 기본적인 문법 항목을 충실히 학습을 할 필요가 있다.

## 2.3 담화 구조 유형 분류

담화 구조 유형에 대해 연구한 대표적인 사람들로는 Carrell(1984), Hillman(1990), Arnaudet과 Barrett(1990), Langan, Bader와 Anton(1992), 그리고 Mikulecky와 Jeffries(1996)등이 있다. 이들은 담화 구조 유형에 대해 각각 다른 분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 비슷하거나 동일한 유형의 분류 기준으로 다른 연구의 내용과 겹치는 경우를 제외하고, 차별성을 갖는 담화 구조 유형 분류를 보인 세 가지 연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 2.3.1 Carrell의 분류

Carrell(1984)은 담화의 유형을 기술 집합 유형(Collection of description), 인과유형(Causation), 문제해결유형(Problem & solution), 비교유형(Comparison)의 4가지로 분류한다.

#### 1) 기술 집합 유형(Collection of description)

기술 집합 유형은 하나의 화제를 중심으로 이를 순서에 관계없이 나열하는 것 혹은 어떤 사건을 설명, 묘사하는 것이다. 이 때에 나열되는 내용들 간의 중요성은 서로 비슷하다.

기술 집합 유형이 사용된 예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Our 25th high school reunion was held last year. We saw many old friends, danced until dawn, and agreed to meet again in five years. (Carrell, 1984: 444)

## 2) 인과유형(Causation)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기술하는 방법이다. 즉,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한 힘과 그 힘에 의해 결과적으로 초래된 현상들을 진술하는 방식이다.

다음은 인과유형이 사용된 예문이다.

Sally wasn't eating well, exercising, or resting enough. As a result, she felt weak and run-down and never wanted to do anything. (Carrell, 1984: 444)

## 3) 문제해결유형(Problem & solution)

하나의 문제를 제시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나열하는 형식이다.

문제해결유형이 사용된 예문 중 하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Pollution is a problem: polluted rivers are health hazards and eyesores. One solution is to bar the dumping of industrial wastes. (Carrell, 1984: 444)

## 4) 비교유형(Comparison)

둘 또는 그 이상의 화자를 비교, 대조하여 서술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비교나 대조를 사용하는 글의 구조는 비교의 목적과 대상을 제시하는 서론 부분과 세부 사항을 비교해서 제시하고 주제별로 특성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본론, 그리고 본론 내용을 요약하여 전체 주제를 제시하는 결론으로 구성되

어 있다.

비교유형이 사용된 예문은 아래와 같다.

Despite evidence that smoking is harmful, many people claim this is not so. Although smoking has been related to lung and heart disease, for some people smoking may relieve tension. (Carrell, 1984: 444)

Carrell은 대부분의 글은 위의 4가지 담화구조가 혼합되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Sally's eating, sleeping, and exercising habits are so poor that they are causing her to feel weak and listless. If Sally would develop a healthier life-style, she would feel better. (Carrell, 1984)

위의 예문은 문제제시가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어서 그에 따른 해결 방식을 나타내고 있다. 즉, 인과유형과 문제해결유형이 혼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2.3.2 Hillman의 분류

Hillman(1990)은 담화 유형을 기술(Description), 분류(Classification), 연대기적 서술(Chronological Narration), 원인과 결과(Cause and effect), 정의(Definition), 예를 통한 주장(Assertions with examples)의 6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 1) 기술(Description)

사람, 사물, 장소 등의 특징에 대해 글쓴이의 느낌이나 견해를 나타내는 것으로 독자의 머릿속에 생생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게끔 하여 이해를 돕도록 한다. 즉, 논리적이고 연상적인 형태로 글을 배열하는 방식으로 대상을 가능한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객관적 기술 방법과 글쓴이의 감정이 이입된 주관적인 기술 방법이 있다.

### 2) 분류(Classification)

어떤 대상이나 내용에 대해서 비슷한 특성과 차이점에 근거하여 범주를 나누고 각 범주의 특징을 나열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의 글에는 분류의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며 또한 한 범주에 속한 각각의 구성 요소들을 전부 통합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3) 연대기적 서술(Chronological Narration)

어떤 이야기나 사건을 글쓴이가 시간적인 순서를 기초로 하여 나열하는 형식이다. 반드시 사건이 일어난 실제적인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글이 전개되는 것은 아니지만 글을 구성하는 문장들 간의 연관성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역사적 사건에 관한 내용이나 인물의 생애 등에 관한 글에서 많이 사용되며, 이 때 독자는 글의 전후관계를 파악하고, 행동과 사건을 실제 진행된 순서에 따라 재배열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 4) 원인과 결과(Cause and effect)

Carrell(1984)의 인과 유형과 같은 것으로 사건의 동기나 배경, 인물의 성격 등이 글 속에 나타나 있으며 원인을 먼저 제시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지만 때로는 그 반대로 기술하기도 한다. 반드시 하나의 원인과 결과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원인에 의해 여러

가지의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반대로 여러 가지의 원인이 하나의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 5) 정의(Definition)

어떤 대상이나 사물의 본질을 설명하는 유형으로 그것의 개념이나 범주를 기술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정의를 내리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담화 유형으로는 분류, 기술, 원인·결과 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서론에서 정의를 내리고 자세한 내용을 본론에서 설명한 후 결론 부분에서 이를 요약하는 형태를 보인다.

#### 6) 예를 통한 주장(Assertions with examples)

글쓴이가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고, 그 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가지기 위해서 객관성이 있는 통계 자료나 이론, 원인과 결과 및 정의 등을 예로써 사용하는 유형이다.

### 2.3.3 Langan, Bader, Anton의 분류

John Langan, Carol Bader, Harley Anton(1992)은 시간적 순서(Time order), 항목나열(List of items), 비교와 대조(Comparison and contrast), 원인과 결과(Cause and effect), 정의와 예시(Definition and examples)의 5가지로 담화 구조의 유형을 분류한다.

#### 1) 시간적 순서(Time order)

사건의 발생 순서에 따라 글을 전개하는 방식으로 과거에서 현재로 글을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반대의 경우도 있다. 이는 Hillman(1990)의 연대기적 서술과 같은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 2) 항목나열(List of items)

Carrell(1984)이 제시한 기술 집합 유형, Hillman(1990)의 기술 유형과 같은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종류로는 다양한 양상에 대한 나열, 사물의 성격을 부각시키기 위한 나열, 주장을 구체화하기 위한 나열, 두괄식 전개에서의 사례 나열, 연역적 전개에서 근거의 나열 등이 있으며, 중심 내용을 먼저 제시하고 보충 내용을 나열하는 하향식 방법과 반대로 보충 내용을 먼저 나타내고 이어서 중심 내용을 강조하는 상향식 방법이 있다.

## 3) 비교와 대조(Comparison and contrast)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물, 사건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기술하는 형태로 대부분의 경우 글의 객관적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비교와 대조를 함께 사용한다.

## 4) 원인과 결과(Cause and effect)

두 가지 이상의 사건이나 결과를 보여주는 유형이며 원인과 결과를 제시하는 순서는 상관이 없다. Carrell(1984)이 제시한 인과유형, Hillman(1990)이 제시한 원인과 결과 유형과 같은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 5) 정의와 예시(Definition and examples)

새로운 개념이나 용어에 대해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 설명하는 유형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세 가지 연구의 분류를 기준으로 하되, 서로 비슷한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고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보충하여 본 연구만의 새로운 분류 기준을 가지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읽

기 영역에 대해 분석하도록 하였다.

## 2.4 담화 구조의 이해와 독해와의 관계

담화 이해에 관한 연구들은 언어의 이해와 회상의 정도가 담화의 구성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들을 밝혀냈다. 대표적으로 Mandler와 Johnson(1977), Kintsch와 van Dijk(1978)의 연구에서는 텍스트 형태의 구조가 담화 이해와 회상에 강한 효과를 가진다고 밝히고 있으며, Meyer, Brandt와 Bluth(1980), 그리고 McGee(1982)도 텍스트의 개념 구조가 독자의 학습과 기억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Jenkinson(1973)은 글의 구조에 대한 이해와 사건의 전개 순서에 대한 예상 및 추적, 그리고 주제 문장의 파악 등이 독해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결과들은 담화 구조에 대한 인식이 언어의 회상과 독해력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Meyer와 Freedle(1984)은 글의 전체 구성 원리에 따라 담화 구조를 분류하고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원어민을 대상으로 담화 구조와 언어 회상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글의 구조가 인과 유형이나 문제해결 유형, 비교 유형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기술 집합 유형의 글보다 회상되는 정보의 양이 더 많다는 것을 밝혀냈다. 또 Carrell(1984)의 ESL 독자를 대상으로 한 담화 유형과 언어 회상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Meyer와 Freedle(1984)의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비교, 인과, 문제해결 유형이 기술 집합 유형의 글보다 독해를 할 때 회상이 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Carrell은 각각의 언어에 따라 글의 구조적 양상이 다양하며, 구조적으로 선명한 글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이해와 기억에 훨씬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김진완(1988)은 우리나라 고등학생과 대학생, 즉 EFL 독자

를 대상으로 담화 구조 유형이 독해와 언어 회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Carrell(198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위의 세 연구 결과는 모국어, ESL, EFL 등 독자의 언어 습득 상황에 상관없이 인과, 문제해결, 비교 유형의 경우 글의 흐름에서 연결성을 높여주는 점점들 간의 관계가 기술 집합 유형에 비해 보다 긴밀하며, 이것은 담화 구성력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담화 구조 간에는 담화 구조내의 상호관련성의 정도에 따라 구성력의 차이가 존재하며, 이것은 독자들의 이해도와 언어 회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결과적으로 이야기 사이의 관계가 긴밀한 담화 유형일수록 회상이 더 잘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위의 연구들을 살펴볼 때, 독해와 담화 구조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글이란 단순히 아무 관계가 없는 문장들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서로 관련이 있는 내용의 문장들이 필자가 의도한 일정한 순서와 구조에 맞추어 통일성 있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글의 내용들 사이의 관계, 즉 글의 구조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담화 구조에 대한 이해는 학습자가 단순히 글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개 될 내용을 예측할 수 있게 해주고 문장과 문장 간의 관계에 대해 파악하여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독자의 독해 능력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 Ⅲ. 연구방법

####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읽기 영역에 출제된 문항들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총 50문항으로 그 중 읽기 영역은 읽기 평가 문항과 간접적 쓰기 평가 문항을 포함하여 매년 33문항씩 출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문항은 총 198문항이며, 한 지문에 여러 개의 문항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분석 대상 지문은 총 180개의 지문이다.

#### 3.2 분석기준

본 연구에서는 담화 구조 유형, 소재, 문제 유형, 그리고 이원 목적의 내용 영역과 행동 영역으로 구분하여 연구 대상을 분석하였다.

##### 3.2.1 담화 구조 유형

본 연구의 첫 번째 분석기준인 담화 구조 유형은 Carrell(1984), Hillman(1990)과 Langan, Bader, Anton(1992)이 분류한 기준을 중심으로 하여 비슷한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고 유형들 간에 서로 구분이 명확하도록 새롭게 정리하여 분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담화 구조 유형은 총 6가지로 시간적 순서(Time order), 열거(Listing), 원인과 결과(Cause and effect), 비교와 대조(Comparison and contrast), 정의와 예시(Definition

and examples), 그리고 문제해결(Problem and Solution)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6가지 담화 구조 유형에 따라 2005년에서 2010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읽기 영역의 지문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각각의 담화 구조 유형에서 많이 쓰인 소재 및 문제 유형과 내용 영역, 행동 영역에 대해 분석하도록 하였다.

이에 앞서 담화 구조 유형과 문제 유형이 혼동되는 것을 피하고, 담화 구조 유형과 문제 유형을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따른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 예를 들어 시간적 순서 담화 구조 유형은 ‘시간적 순서 담화 유형’으로 약해서 쓰고, 어법성 판단 문제 유형은 ‘어법성 판단 유형’이라 하겠다.

#### 1) 시간적 순서(Time order)

글에 나타나는 행동이나 사건들에는 일련의 과정이 있는데, 이 담화 유형은 그것을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전개하는 방식이다. 때로는 실제 사건이 발생한 순서와 일치하지 않게 이야기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보다 드라마틱한 효과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시간적 순서 담화 유형에는 각 문장들 사이의 긴밀한 연관성이 있어야만 하는데, 그래야 독자로 하여금 세부 내용을 시간상의 선후 관계를 따져 본래의 순서에 맞게 밝힐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시간의 흐름에 따른 순서뿐만 아니라 시작과 중간, 끝의 일련의 과정이 나타나는 글과 공간적인 이동의 순서에 따라서 글이 전개되는 공간적 구성의 글도 이 담화 유형에 포함하도록 한다.

Dominique-Jean Larrey was born on July 8, 1766, in France. Larrey began his medical studies in Toulouse. During the Revolution, in 1792, he joined the Army of the North as a military surgeon. He introduced field hospitals, ambulance service, and first-aid treatment to the

battlefield. He eventually became principal surgeon of the French Army and thereafter followed Napoleon Bonaparte in almost all his campaigns in Egypt, Italy, Russia, and finally at Waterloo. After the fall of Napoleon, Larrey's medical reputation saved him, and he was named a member of the Academy of Medicine at its founding in 1820.

(2007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영역 35번)

위의 글은 Dominique-Jean Larrey의 출생에서부터 그의 일생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기술하고 있다.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 주는 어구로는 출생년도, 프랑스 대혁명 동안을 나타내는 during, 수석 군의관이 된 후를 나타내는 thereafter, 그리고 나폴레옹의 몰락 후를 가리키는 after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시간적 순서 담화 유형은 시간적인 순서를 기초로 하여 글을 전개하는 형식이며, 일반적으로 역사적 사건을 설명하거나 인물의 생애 등을 나타내는 전기문이나 일기문, 기행문 등에 많이 사용된다.

## 2) 열거(Listing)

대체적으로 앞에 제시된 글의 주제를 보충하거나 뒷받침하는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나열되어 글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설명하는 담화 유형이다. 본 연구에서는 Carrell(1984)의 기술집합 유형이나 Hillman(1990)의 기술유형과도 같은 개념으로 보아 필자가 독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상세히 묘사하는 글의 형식도 포함한다. 열거되는 내용들은 Arnaudet 과 Barrett(1990)이 제시한 것처럼 그 중요도가 서로 동등한 경우(동등배열), 가장 중요한 항목이 마지막에 위치하는 상향식 순서(상승배열),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항목이 처음에 위치하는 하향식 순서(하강배열)로 구분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필요한 구분이 아니므로 세분화하지는 않도록 하겠다.

Like its largemouth cousin, the smallmouth bass is a native of the Mississippi drainage, which makes it a true heartland fish. Whereas the largemouth likes slow or still water with lots of food-holding weeds, the smallmouth prefers clean, rocky bottoms and swifter water, ideally in the range of 65° to 68°F. In waters warmer than 73°F, you can forget about finding one. In lakes, smallmouth often school up, which means that if you catch one, you can catch a bunch. In rivers and streams, they are more solitary. The smallmouth has a series of dark vertical bands along its sides. The dorsal fin is one continuous fin (as opposed to the separated dorsal fin of the largemouth).

(2010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영역 36번)

위의 글은 작은 입 농어에 대해 그것의 원산지, 선호지역, 이상적인 온도, 지역에 따른 서식 습성, 그리고 시각적인 특징 등에 대해 차례로 열거하는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큰 입 농어와의 대조적인 특징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은 입 농어를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작은 입 농어의 특징들을 나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열거 담화 유형은 이렇게 어떤 사물이나 사건의 상황이나 특징들을 자세히 묘사하여 독자로 하여금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 3) 원인과 결과(Cause and effect)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과 그에 따른 결과를 설명하는 담화 유형의 글로 대체적으로 논리적 필연성을 가지고 있다. 객관적인 구성방식으로 논리적인 글이나 과학적인 글에서 많이 사용된다. 원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따른 결과

를 간단히 보여주는 원인 중심의 글과 반대로 원인을 간단히 설명하고 그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는 결과 중심의 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원인과 결과가 동시에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적 순서 담화 유형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When people began to bind books with pages that could be turned rather than unrolled like papyrus, the process of \_\_\_\_\_ changed. Now the reader could easily move backward in the text to find a previously read passage or browse between widely separated sections of the same work. With one technological change, cross-referencing became possible, while the physical space needed to house a collection of books was sharply reduced. Page numbers became a possibility, as did indexes; tables of contents became workable references.

(2008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영역 25번)

위의 글은 책의 제본 기술 도입이라는 원인으로 인한 여러 가지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독자는 책을 앞뒤로 넘겨가며 필요한 부분을 찾아볼 수 있게 되었고 또한 페이지 수를 매기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목차를 참고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장점들이 나타나 있는 결과 중심의 글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원인과 결과 담화 유형에는 하나의 원인으로 인한 여러 결과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원인으로 인해 하나의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며 원인과 결과가 나타나는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

#### 4) 비교와 대조(Comparison and contrast)

어떤 두 개 이상의 사물이나 사건에 대해 특성을 파악하여 그것들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글을 전개하는 담화 유형을 말한다.

Everywhere in the world, the issue of how to manage urban growth poses the highest stakes, complex policy decisions, and strongly heated conflicts in the public area. The contrast between Western Europe and America is particularly sharp. In Western Europe, steep gasoline taxes, investment policies favoring built-up areas over undeveloped greenfields, continuous investment in public transportation, and other policies have produced relatively compact cities. Cities in Western Europe tend to be economically healthy compared with their suburbs. By contrast, in the United States, cheap gas, massive highway investment, policies that favor construction on the edges of cities, and heavy reliance on property taxes to fund public schools have encouraged much more car-reliant and spread-out urban areas, where eight in ten Americans now live.

(2009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영역 45번)

위의 글은 공공 정책에 있어서 도시 성장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서유럽과 미국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서로 다른 투자 정책을 펼친 결과 각각 집중화된 도시와 교외로 넓게 퍼진 도시라는 차이점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대조의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다. The contrast between Western Europe and America 와 By contrast라는 어구에서 보다 확실하게 대조 담화 유형을 사용하였음이 드러나고 있으며 먼저 한 쪽의 상황이나 사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한 후, 후반부에 그와 반대적인 상황이나 사건을 나열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위의 글과 같이 대조적인 면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유사점과 차이점을 모두 나타냄으로써 비교와 대조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또 한 항목별로 두 사물이

나 사건을 비교, 대조하며 글을 진행하는 경우(항목별 비교·대조 방식)도 있고, 위에서와 같이 먼저 하나의 대상을 설명하고 이어서 다른 대상에 대해 비교 또는 대조하는 형태(전체적 비교·대조 방식)로 글이 전개되기도 한다.

#### 5) 정의와 예시(Definition and examples)

정의는 어떤 사물이나 대상의 본질에 대해 명백히 진술하고자 하는 담화 유형이다. Arnaudet과 Barrett(1990)은 정의 담화 유형을 두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먼저 여러 가지 자료를 제시하는 예시 담화 유형과 함께 쓰여 정의를 내리는 사람이나 상황에 구애되지 않고 객관성을 갖을 수 있도록 하는 일상적 정의(formal definition)가 있다. 그리고 주어진 글을 필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개인적 의미를 부과하여 해석하는 형태로 독자와 필자간의 일종의 약속으로서의 정의를 의미하는 약정적 정의(stipulated definition)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세한 구분은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내용과 관련성이 없으므로 세분화하지 않고 통틀어서 정의 담화 유형으로 분류하도록 하였다.

John Langan, Carol Bader와 Harley Anton(1992)은 새로운 용어나 개념을 정의할 때 여러 가지 예시들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바탕으로 이를 담화 구조 유형의 하나로 함께 분류하였다. 예시 담화 유형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기 때문에 정의 담화 유형과 함께 사용될 경우 글이 객관성을 가질 수 있게끔 한다. 또한 다른 담화 유형들과 함께 사용되어 필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예를 제공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설득력을 갖게 하고, 글의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angan, Bader와 Anton(1992)의 연구에서처럼 글에서 정의 담화 유형이나 예시 담화 유형이 동시에 드러나는 경우뿐만 아니라, 둘 중 한 가지 담화 유형만 도드라지는 경우에도 이를 정의와 예시 담화 유형으로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A status symbol is something, usually an expensive or rare object, that indicates a high social status for its owner. What is considered a status symbol will differ among countries, based on the states of their econom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common status symbols will change over time. Status symbols can indicate the cultural values of a society. Let's take some examples. In a society that cherishes honor or bravery, a battle wound would be more of a status symbol. In a commercial society, where having money or wealth is most important, things that can be bought by wealth, such as cars, houses, or fine clothing, are considered status symbols. And in a society where people craze for beauty, the condition of one's skin and body can be a status symbol.

(2008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영역 38번)

위의 글은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지위의 상징에 대해 그 개념을 설명하고 그것들이 경제적, 기술적 발전 사태에 따라 또한 사회의 문화적 가치에 따라 달라진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나서 Let's take some examples라는 문장의 뒤에서 다양한 사회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지위의 상징들에 대한 사례가 열거된다. 이처럼 정의와 예시 담화 유형에는 두 담화 유형이 함께 사용되는 경우, 먼저 개념이나 용어 등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그에 대한 자세한 예시들을 제시하는 형태와 예시가 먼저 나타나고 뒤에 정의를 내리는 형태의 글이 있다.

#### 6) 문제해결(Problem and solution)

문제가 되는 사건이나 상황이 제시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글의 담화 유형이다.

How can you create closeness when the two of you are hundreds of miles apart? How can you make the person you are talking to on the phone feel special when you cannot pat their back or give them a little hug? The answer is simple. Just use your caller's name far more often than you would in person. In fact, shower your conversations with his or her name. Saying a person's name too often in face-to-face conversation sounds manipulative. However, on the phone the effect is dramatically different. If you heard someone say your name, even if you were being pushed around in a big noisy crowd, you would pay attention and listen.

(2010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영역 44번)

위의 글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친밀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문제가 되는 상황을 먼저 제시하고 이후에 The answer라는 어구를 통해 그 해답이 될 수 있는 상대방의 이름을 많이 말하라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문제해결 담화 유형은 위의 글처럼 문제점이나 해결해야 할 상황들이 먼저 나타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이 제시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이 때 해결방안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 3.2.2 소재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출제되는 글의 소재에 대해 제 7차 고등학교 외국어(영어) 교육과정(교육부, 1997)에서 제시한 [별표 1]의 소재 내용에 의거하여 2005학년도부터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읽기 영역 198문항의 180개 지문을 총 17가지 소재 내용으로 분류하였다.

[별표 1] 소 재

아래의 일상생활과 친숙한 일반적인 화제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소재를 선택하되, 의사소통 능력, 탐구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한다.

- ①. 개인 생활에 관한 내용
- ②. 가정생활과 의식주에 관한 내용
- ③. 학교생활과 교우 관계에 관한 내용
- ④. 주변의 사회생활과 대인 관계 등에 관한 내용
- ⑤. 생활 습관, 건강, 운동 등에 관한 내용
- ⑥. 취미, 오락, 여행 등 여가 선용에 관한 내용
- ⑦. 동식물, 계절, 날씨 등 자연 현상에 관한 내용
- ⑧. 외국인의 생활 습관, 학교생활 등 일상생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 ⑨. 우리 문화, 예절, 일상생활을 소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 ⑩. 공중도덕, 질서 등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되는 내용
- ⑪. 환경 보전, 봉사, 협동 정신 등 건전한 사고를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 ⑫. 정치, 경제, 역사, 지리, 과학, 정보 통신, 우주, 해양, 탐험 등 교양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 ⑬. 예술, 문학 등과 같이 심미적 심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 ⑭. 근로, 근검절약, 진로 문제 등 개인의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는 내용
- ⑮. 남녀평등, 인권과 민주 시민 생활 등 민주 의식을 고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 ⑯. 정서 순화와 합리적 사고력 배양에 도움이 되는 내용
- ⑰. 애국심 함양과 안보에 도움이 되는 내용

### 3.2.3 문제 유형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읽기 영역의 문제 유형은 크게 문법, 어휘, 읽기, 쓰기의 네 가지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문법에는 ‘어법성 판단’ 유형으로 맞는 어법을 고르는 문항과 틀린 어법을 고르는 문항이 포함된다.

어휘 부분에는 ‘문맥상에 맞는 어휘 추론’과 ‘부적절한 어휘 추론’의 두 가지 문제 유형이 있다.

읽기 부분은 ‘지칭 추론’, ‘글의 목적 파악’, ‘빈칸 추론’, ‘심경(감정) 추론’, ‘글의 분위기 파악’, ‘연결어 추론’, ‘주제 추론’, ‘도표의 이해’, ‘내용 일치 파악’, ‘요지 추론’, ‘제목 추론’, ‘필자의 주장 파악’ 등 12가지 문제 유형으로 나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쓰기 부분은 ‘글의 흐름과 무관한 문장 찾기’, ‘글의 순서 배열’, ‘주어진 문장의 위치 파악’, ‘문단의 요약 및 적용’ 등 4가지 문제 유형이 있다.

따라서 외국어(영어) 읽기 영역의 문항들은 위의 네 가지 영역의 분류에 따른 유형들을 종합하여 총 19가지 문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2006학년도부터 2010학년도의 46번 문항부터 50번 문항까지 각각 5문항씩 총 20문항과 2005학년도의 45번 문항부터 50번 문항까지 6문항을 더한 총 26문항은 장문의 지문을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단일 또는 복합 지문 형태의 장문의 지문이 출제되었다. 따라서 담화 구조 유형이나 소재 분석 등에서는 지문에 따라 분류를 하고 문제 유형은 각각의 문항별로 따로 분석하도록 하였다. 즉, 담화 구조 유형이나 소재 분류 등에서는 매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읽기 영역의 30개 지문씩 총 180개 지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문제 유형 분류에는 매년 33개 문항씩 6년간 총 198개 문항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 3.2.4 이원 목적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9)에서 제시한 외국어(영어) 영역의 평가 목표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에서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데 필요한 어휘 및 문법성 판단력, 사실적 이해력, 추론적 이해력, 종합적 이해력, 적용력의 측정에 맞추어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읽기 영역도 이원 목적에 따라 분류하였다.

이원 목적 분류표는 출제할 문제의 문항 수, 내용 영역별 문항표집 계획 및 그 비중, 행동 영역별 문항표집 계획 및 그 비중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며 모든 평가 문항 작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오성삼, 1992). 이원 목적 분류표는 평가대상을 내용과 행동의 차원에서 그 성격을 분명히 하고 종합화하는 기능을 해주며, 문항제작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일종의 출제 계획표라고도 할 수 있다.

2005년에서 2010년까지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읽기 영역을 이원 목적에 따라 세분화된 내용 영역과 행동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내용 영역(content domain)에 따른 분류

본래 외국어(영어) 영역 이원 목적 분류표에 따르면 내용 영역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읽기 영역에 대한 부분이므로 네 가지 영역 중 읽기 영역에 속하는 읽기, 쓰기 영역에 대해서만 분석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읽기와 쓰기로 분류하지 않고, 글의 종류에 따라

설명문, 논설문, 그리고 수필이나 일기문, 편지문, 전기문, 광고문, 소설이나 문학적인 글을 모두 포함하는 실용/기타의 총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 2) 행동 영역(performance domain)에 따른 분류

행동 영역은 앞서 이론적 배경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영역 평가목표에서 제시되었던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언어의 4가지 기능을 실제 사용하는데 필요한 어휘, 문법성 판단력, 사실적 이해력, 추론적 이해력, 종합적 이해력, 그리고 적용력으로 세분화하여 읽기 영역에 대해 분석하였다.

## IV. 연구 결과 및 논의

### 4.1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읽기 영역 분석

#### 4.1.1 담화 구조 유형에 따른 분석 결과

본 연구의 담화 구조 유형 분석기준 6가지에 따라 2005학년도부터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읽기 영역에서 장문의 지문을 포함한 총 180개의 지문을 분석한 결과 열거, 원인과 결과, 비교와 대조, 문제해결, 정의와 예시, 그리고 시간적 순서 담화 유형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담화 구조 유형에 따른 분석 결과

담화 구조 유형	지문 수							비율 (%)
	10	09	08	07	06	05	계	
시간적 순서	2	1	2	3	2	3	13	7.22
열거	4	7	9	12	6	7	45	25.00
원인과 결과	7	5	5	6	5	7	35	19.44
비교와 대조	7	7	7	2	5	3	31	17.22
정의와 예시	4	8	3	2	4	5	26	14.44
문제해결	6	2	4	5	8	5	30	16.67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읽기 영역 지문은 Carrell(1984)이 주장했

던 바와 같이 대체적으로 위의 6가지 담화 구조가 혼합되어 이루어져 있었다. 예로써 아래의 글은 문제제시가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부분에 이은 다음 부분부터는 그에 따른 해결 방식을 나타내는 형태를 띠고 있다.

Tennis is in some trouble. People seem to be losing interest in the game. One major reason for this is that the men's professional game has lost some of its appeal.

(2006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영역 49~50번)

즉, 문제해결 담화 유형이 글의 중심적인 담화 구조 유형이지만 문제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원인과 결과 담화 유형이 함께 사용되어 혼합된 담화 구조 유형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혼합된 담화 구조 유형은 둘 또는 세 가지 유형이 하나의 글에서 똑같은 분량이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더 뚜렷하고 글의 전개에 있어서 가장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유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혼합된 담화 구조 유형이 사용된 경우의 지문은 좀 더 중점적인 담화 구조 유형이 무엇인가에 따라 그것을 기초로 하나의 담화 유형으로 지문을 분류하였다.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총 6년간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읽기 영역에 나타난 담화 구조 유형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열거 담화 유형의 경우에는 2005, 2007,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모두 가장 높은 빈도수를 나타냈다. 그러나 가장 최근에 치러진 2010학년도에는 총 4개의 지문에서만 사용되어 시간적 순서 담화 유형 다음으로 적은 횟수를 보였다.

또한 6년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가장 적게 나타난 담화 구조 유형인 시

간적 순서 담화 유형은 2007년을 제외하고 총 5년간 가장 낮은 빈도의 담화 구조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원인과 결과, 비교와 대조, 정의와 예시, 그리고 문제해결 담화 유형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총 180개 지문 중 각각 30개 전후의 빈도수를 보여 비슷한 정도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교와 대조 담화 유형은 2005년과 2007년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각각 2개, 3개의 지문에 한정되어 가장 낮은 빈도를 나타냈으며, 문제해결 담화 유형의 경우 다른 해에 비해 2009년에는 2개의 지문에서만 사용되어 비교적 낮은 빈도를 보였다.

연도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열거 담화 유형과 원인과 결과 담화 유형이 각각 7개 지문씩 출제되어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이에 비해 시간적 순서 담화 유형과 비교와 대조 담화 유형은 각각 3개씩 출제되어 가장 적게 나타났다.

2006년에는 다른 해에 비해 문제해결 담화 유형이 8개 지문에서 사용되어 가장 많이 나타난 담화 구조 유형이었다. 그리고 시간적 순서 담화 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담화 유형은 서로 비슷한 횟수로 출제되어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볼 수 있었다.

2007년 대학수학능력시험에는 열거 담화 유형이 총 12개의 지문에 사용되어 압도적으로 많은 횟수를 보였다. 그에 비해 비교와 대조, 정의와 예시 담화 유형은 다른 해와 비교해 적게 나타나 읽기 영역 지문의 담화 구조가 열거 담화 유형으로 지나치게 치우친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역시 열거 담화 유형이 가장 많은 횟수로 사용되었다. 비교와 대조 담화 유형은 7개 지문에서 나타나 지난해에 비해 높아진 비중을 볼 수 있었다.

2009년에는 정의와 예시 담화 유형이 총 8번 나타나 6년간의 시험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시간적 순서 담화 유형은 겨우 1개의 지문에서만 사용되어 6년 동안 가장 낮은 횟수로 출제된 해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이었던 2010학년도는 열거 담화 유형이 4개의 지문에서만 사용되어 가장 낮은 횟수로 출제된 해였다. 그리고 원인과 결과 담화 유형과 비교와 대조 담화 유형은 각각 7번씩 나타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시간적 순서 담화 유형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유형들과 그 횟수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비교적 고른 담화 구조 유형 분포를 보였다.

위의 담화 구조 유형에 대한 연도별 분석 결과, 가장 많이 사용된 담화 구조 유형이 해마다 조금씩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6년 중 3년에 걸쳐 열거 담화 유형이 가장 많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또 가장 많이 나타난 담화 유형과 가장 적게 나타난 담화 유형의 수에서 꽤 큰 차이를 살펴볼 수 있었는데 이렇게 담화 구조 유형의 분포가 고르지 못하다는 점은 학생들이 보다 다양한 구조의 지문을 접하지 못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좀 더 여러 가지 담화 구조를 고르게 사용하는 지문의 출제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담화 구조 유형에 따라 몇몇 지문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먼저 시간적 순서 담화 유형의 경우 6년간 총 13개의 지문이 모두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의 본래의 시간의 흐름에 맞게 나타났으며, 사건의 발생순서와 일치하지 않는 유형의 글은 없었다. 또 거의 대부분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글이 전개되었으나, 2006년에 출제된 33번 문제의 경우에는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공간적인 이동도 포함하고 있었는데, 지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he room was warm and clean, the curtains drawn, the two table lamps lit — hers and the one by the empty chair opposite. On the sideboard behind her, two tall glasses, soda water, champagne. Now and again she would glance up at the clock, but without anxiety,

merely to please herself with the thought that each minute gone by made it nearer the time when he would come. There was a slow smiling air about her. When the clock said ten minutes to five, she began to listen, and a few moments later, punctually as always, she heard the car approach and stop outside. The car door closed, and her heart beat faster as the footsteps passed the window.

(2006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영역 33번)

위의 지문은 따뜻하고 깨끗한 방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커튼, 두 개의 테이블 램프, 의자, 찬장 등으로 방 안의 모습을 마치 시선의 흐름을 따르듯 순서대로 묘사하여 공간적인 흐름을 따라 글이 전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어 now and again으로 시작하는 문장에서 시계가 나타난 후부터는 그가 돌아올 것을 기다리며 설레어 하는 여인의 모습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리고 있어, 공간적 순서와 시간적 순서가 모두 나타난 글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많이 사용된 열거 담화 유형의 경우에는 글의 중심 내용을 뒷받침하는 사항들이 차례로 나열되거나, 사건이나 사물의 특징이 상세히 묘사되어 있었는데 그 중 한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he *Nambawi* is one of the oldest traditional winter hats in Korea. At first, only men and women of the upper classes wore it. Later, it was worn by the commoners, and still later only by women. The hat protects the head and forehead from freezing winds and has a round opening at the top. There is a long back flap for the back of the neck, and ear flaps on both sides reveal the ears. Silk sashes are attached to the ear flaps. The sashes are tied under the chin to

hold the hat tightly in place. The bottom of the *Nambawi* is bordered with fur, and the hat is decorated with flower and bird patterns.

(2007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영역 31번)

위의 지문은 한국의 전통 모자인 남바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먼저 남바위라는 명칭의 의미부터 시작하여 주로 착용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또 모자의 역할과 형태, 장식에 이르기까지 모양새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묘사하여 이것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열거 담화 유형은 나열되는 사항들의 중요도에 따라 동등배열, 상승배열, 하강배열로 구분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내용과 크게 상관이 없고 너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세분화시키지 않기로 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열거 담화 유형은 나열되는 사항들이 서로 비슷한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는 동등배열의 경우가 거의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원인과 결과 담화 유형은 대체적으로 매년 5개에서 7개의 지문에서 나타나 고른 분포를 보였는데, 그 중 하나의 지문을 살펴보기로 한다.

The first experiments in television broadcasting began in France in the 1930s, but the French were slow to employ the new technology. There were several reasons for this hesitancy. Radio absorbed the majority of state resources, and the French government was reluctant to shoulder the financial burden of developing national networks for television broadcasting. Television programming costs were too high, and program output correspondingly low. Poor distribution combined with minimal offerings provided little incentive to purchase the new product. Further, television sets were priced

beyond the means of a general public whose modest living standards, especially in the 1930s and 1940s, did not allow the acquisition of luxury goods. Ideological influences also factored in; elites in particular were skeptical of television, perceiving it as a messenger of mass culture and Americanization.

(2009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영역 28번)

위의 지문은 첫 텔레비전 방송 실험이 프랑스에서 시작되었지만, 프랑스 인들은 그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 결과를 먼저 제시하고 있다. 이어서 그 이유, 즉 그런 현상이 일어난 몇 가지 원인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지문의 내용상 앞에 한 문장으로 요약된 결과에 비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원인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원인 중심의 글로 구분할 수 있다. 또 결과가 먼저 나타나고 원인이 뒤를 잇는 전개 방식으로 원인과 결과의 순서가 뒤바뀌어도 상관이 없음을 보여준다.

네 번째 담화 구조 유형인 비교와 대조 담화 유형은 2008년부터 최근 3년간 7번씩 사용되어 2005년부터 2007년에 비해 높아진 비중을 볼 수 있었다. 그 중에서 아래의 지문은 비교와 대조 담화 유형을 사용하여 우주 임무에서 로봇과 사람의 능력의 차이에 따라 임무 수행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While manned space missions are more costly than unmanned ① ones, they are more successful. Robots and astronauts use ② much of the same equipment in space. But a human is much more capable of operating those instruments correctly and ③ to place them in appropriate and useful positions. Rarely ④ is a computer more

sensitive and accurate than a human in managing the same geographical or environmental factors. Robots are also not equipped with capabilities like humans to solve problems ⑤ as they arise, and they often collect data that are unhelpful or irrelevant.

(2010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영역 22번)

어법상 틀린 부분을 찾는 문제인 위의 지문에서는 똑같은 장비를 사용한다고 해도 사람은 도구 조작과 설치에 있어 로봇보다 훨씬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며 로봇과 사람을 비교한다. 그리고 지역적, 환경적 요소 관리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에 있어서의 컴퓨터와 로봇의 부족한 점에 대해 사람과의 차이를 들며 논하고 있다. 즉, 우주 임무 수행 시 장비 사용 능력, 환경 관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의 여러 측면에서 사람과 로봇의 차이점에 대해 항목별로 글이 진행되는 항목별 비교·대조 방식의 글이라고 볼 수 있다.

6년 동안의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시간적 순서 담화 유형의 뒤를 이어 총 26번으로 두 번째로 낮은 사용 빈도를 나타낸 담화 구조 유형은 정의와 예시 담화 유형이다. 그러나 2009년에는 8개의 지문에서 사용되어 6년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는데, 그 중 하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Whether their grandchildren have special needs or not, grandparents shouldn't overlook the value of incidental learning experiences. ( ① ) Every day, opportunities exist in the form of errands, meal preparation, and chores. ( ② ) At the farmers' market, for example, a child might discover a new meaning for the word 'ears' when choosing corn. ( ③ ) Similarly, when filling the tank at the gas station, older children can compare prices and practice estimation, asking questions such as "How much do you think it will

cost to fill the tank?” ( ④ One grandmother hires her grandchildren to help with gardening chores. ) As a result, they can learn the names of flowers and understand the tools and processes involved in growing vegetables. ( ⑤ ) Activities like these also enhance the value of hard work and persistence.

(2009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영역 44번)

위의 지문은 아이들의 우연적 학습의 가치에 대해 예를 들어 이야기하고 있다. 시장에서 옥수수를 고를 때,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정원 일을 도울 때 등 아이들은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학습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예시 상황을 제공함으로써 글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 필자의 주장에 대해 설득력을 갖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지문에서처럼 사물의 본질에 대해 정의를 내리는 경우가 아니라도 필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하는 경우로써의 예시 담화 유형을 사용하는 경우도 전체 정의와 예시 담화 유형의 반 정도를 차지하였다.

마지막 담화 구조 유형으로 문제해결 담화 유형의 경우 총 30개의 지문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 2009년에는 겨우 2번만 사용되어 가장 낮은 빈도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2006년에는 8번이나 사용되어 가장 많았다. 그 중 한 지문을 살펴보고자 한다.

One myth tells how a group of gods had a meeting to decide where to hide the "truth of the universe" from people. The first god suggested putting ① it under the ocean, but the others shouted him down, saying that people would build an underwater boat to take themselves there to find ② it. A second god suggested hiding ③ it

on a planet far from the earth, but the other gods realized that a craft might be built to reach this destination as well. Finally, a third god suggested that they hang ④ it around the neck of every human being. The other gods agreed that people would never look at ⑤ it for the truth. So they did exactly as the third god had suggested.

(2006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영역 18번)

위의 지문의 내용은 신들이 ‘where to hide the “truth of the universe” from people’이라는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세 명의 신들이 차례로 다양한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데 앞의 두 신들의 의견에는 문제점이 있어 다른 신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세 번째 신의 의견을 따라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이처럼 문제해결 담화 유형은 본 연구의 분석에서도 문제점이나 문제가 되는 상황이 앞에 제시되고 이에 따른 여러 가지 해결 방안들이 뒤를 따르는 형태로 나타났다.

#### 4.1.2 소재에 따른 분석 결과

본 연구의 소재 분석 기준 17가지에 따라 2005학년도부터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읽기 영역 총 180개의 지문을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결과 분석표를 얻을 수 있었다. 한 지문에는 여러 개의 소재가 나타날 수도 있으나 이 중 가장 중요한 소재를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표 2> 소재에 따른 분석 결과

번호	소재	지문 수							비율 (%)
		10	09	08	07	06	05	계	
1	개인 생활에 관한 내용	1	1	2	1	0	5	10	5.56
2	가정생활과 의식주에 관한 내용	1	3	0	0	1	3	8	4.44
3	학교생활과 교우 관계에 관한 내용	1	1	1	0	0	0	3	1.67
4	주변의 사회생활과 대인 관계 등에 관한 내용	6	1	5	6	0	3	21	11.67
5	생활 습관, 건강, 운동 등에 관한 내용	2	1	3	3	3	4	16	8.89
6	취미, 오락, 여행 등 여가 선용에 관한 내용	0	2	3	2	0	0	7	3.89
7	동식물, 계절, 날씨 등 자연 현상에 관한 내용	2	3	1	2	5	0	13	7.22
8	외국인의 생활 습관, 학교생활 등 일상생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1	0	1	0	1	0	3	1.67
9	우리 문화, 예절, 일상생활을 소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0	0	0	1	1	0	2	1.11
10	공중도덕, 질서 등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되는 내용	1	0	0	1	1	0	3	1.67
11	환경 보전, 봉사, 협동 정신 등 건전한 사고를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1	0	1	1	0	0	3	1.67
12	정치, 경제, 역사, 지리, 과학, 정보 통신, 우주, 해양, 탐험 등 교양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8	11	9	9	8	6	51	28.33
13	예술, 문학 등과 같이 심미적 심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2	1	3	1	3	4	14	7.78
14	근로, 근검절약, 진로 문제 등 개인의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는 내용	1	2	0	1	2	0	6	3.33

15	남녀평등, 인권과 민주 시민 생활 등 민주 의식을 고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1	1	0	1	0	0	3	1.67
16	정서 순화와 합리적 사고력 배양에 도움이 되는 내용	2	3	1	1	5	3	15	8.33
17	애국심 함양과 안보에 도움이 되는 내용	0	0	0	0	0	2	2	1.11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총 6년간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읽기 영역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소재의 내용은 ‘⑫ 정치, 경제, 역사, 지리, 과학, 정보 통신, 우주, 해양, 탐험 등 교양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줄여서 ‘교양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쓰겠다.)’으로 연도별로도 매년 17개의 소재들 중 가장 높은 빈도의 출제율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난 소재는 총 스물한 번 출제된 ‘④ 주변의 사회생활과 대인 관계 등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2006년도에는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아 관심을 끌었다. 이에 반해 가장 적게 출제된 소재로는 6년 동안 총 두 번씩만 출제된 내용인 ‘⑨ 우리 문화, 예절, 일상생활을 소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과 ‘⑰ 애국심 함양과 안보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나타났다.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된 소재로는 ‘⑤ 생활 습관, 건강, 운동 등에 관한 내용’과 ‘⑫ 교양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⑬ 예술, 문학 등과 같이 심미적 심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그리고 ‘⑩ 정서 순화와 합리적 사고력 배양에 도움이 되는 내용’ 등 4가지 소재가 나타났다. 이들 소재는 매년 한 번씩이라도 출제되어 다른 소재들과 달리 6년 동안 꾸준히 사용된 소재로 밝혀졌으며, ‘④ 주변의 사회생활과 대인 관계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6년간 가장 많이 사용된 5가지 소재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2005년에 가장 많이 사용된 소재는 역시 ‘⑫ 교양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총 6개의 지문에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다른 해에 비해 적은 횟수이다. 다음으로 ‘① 개인 생

활에 관한 내용'이 총 5개의 지문에서 사용되어 두 번째로 많이 출제된 소재로 나타났다. 그러나 17개의 소재 분석 기준 중 9개에 달하는 소재들이 2005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총 8개의 소재만이 사용되어 고르지 못한 소재 사용을 보였다. 이 중 '⑦ 동식물, 계절, 날씨 등 자연 현상에 관한 내용'의 경우에는 2005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출제되어 6년 동안 오직 2005년에만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다. 또한 '⑰ 애국심 함양과 안보에 도움이 되는 내용'의 경우에는 2005년에는 총 2개의 지문에서 사용되었는데, 이 후의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단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다.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⑫ 교양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 8개의 지문에서 출제되어 가장 많이 사용된 소재로 나타났다.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된 소재로는 '⑦ 동식물, 계절, 날씨 등 자연 현상에 관한 내용'과 '⑯ 정서 순화와 합리적 사고력 배양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총 다섯 번씩 사용되었는데, 이는 다른 해에 비해서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인 것이다. 이에 반해 앞서 살펴보았듯이 '④ 주변의 사회생활과 대인 관계 등에 관한 내용'은 2006년을 제외하고 매년 출제되었으며, '① 개인 생활에 관한 내용'도 2006년에만 유일하게 이 소재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2006년에는 '① 개인 생활에 관한 내용'과 '④ 주변의 사회생활과 대인 관계 등에 관한 내용'을 비롯하여 총 7개의 소재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총 10개의 소재가 사용되어 2005년에 이어 두 번째로 고르지 못한 소재 사용을 보였다.

2007년에도 9개의 지문에서 '⑫ 교양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 사용되어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였으며, 두 번째로는 '④ 주변의 사회생활과 대인 관계 등에 관한 내용'이 총 여섯 번 사용되어 2005년부터 2010년의 총 6년 중 가장 많은 횟수로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⑨ 우리 문화, 예절, 일상생활을 소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한 개의 지문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 이는 2006년과 더불어 6년간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중에서 유일하

게 이 소재가 사용된 해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보인다. 그리고 2007년의 경우에는 ②, ③, ⑧, 그리고 ⑰번 등 단지 4개의 소재만이 사용되지 않아 총 13개의 소재가 비교적 고르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의 경우, 총 9개의 지문의 소재로 나타난 ‘⑫ 교양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에 이어 ‘④ 주변의 사회생활과 대인 관계 등에 관한 내용’이 5개의 지문에서 사용되어 높은 빈도를 보였다. 그러나 역시 ②, ⑨, ⑩, ⑭, ⑮, 그리고 ⑰번 등 6개의 소재는 지문에서 사용되지 않아서 소재 사용이 고르게 분포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2009년에는 ‘⑫ 교양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 총 열한 번 사용되어 6년 동안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중에 가장 높은 비율로 출제되었다. 그러나 많은 수의 지문의 소재가 이처럼 ⑫번으로 치중된 만큼, 다른 소재들의 사용 빈도는 낮았다.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난 소재로는 총 세 번씩 사용된 ‘② 가정생활과 의식주에 관한 내용’과 ‘⑦ 동식물, 계절, 날씨 등 자연 현상에 관한 내용’, 그리고 ‘⑯ 정서 순화와 합리적 사고력 배양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다. 또한 ⑧, ⑨, ⑩, ⑪, ⑰번은 단 한 개의 지문에서도 사용되지 않아 2009년에는 총 13개의 소재들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에 치러진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⑫ 교양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은 8개의 지문에서 나타나 가장 높은 출제 빈도의 소재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④ 주변의 사회생활과 대인 관계 등에 관한 내용’도 6개의 지문에서 사용되어 두 번째로 높은 빈도수를 보였다. 2010년에 주목할 만한 점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소재가 ⑥, ⑨, ⑰번의 단지 3가지뿐으로 총 14개의 소재들이 비교적 고르게 나타나 가장 많은 수의 소재가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2005학년도부터 2010학년도까지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읽기 영역의 연도별 소재 사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2005년부터 2010년에 이르기까지 해가 거듭할수록 사용된 소재가 다양해지는 바람직한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6년 동안 계속적으로 한 소재의 사용 빈도가 두드러지게 높았던 점은 다시 한 번 고려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 4.1.3 문제 유형에 따른 분석 결과

2005학년도부터 2010학년도까지 6년간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읽기 영역 총 198개의 문항을 문법, 어휘, 읽기 및 쓰기의 19개 문제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표를 얻을 수 있었다.

<표 3> 문제 유형에 따른 분석 결과

번호	영역	문제 유형	문항 수							비율 (%)
			10	09	08	07	06	05	계	
1	문법	어법성 판단	2	2	2	2	2	3	13	6.57
2	어휘	문맥상에 맞는 어휘 추론	1	2	1	1	1	2	8	4.04
3		부적절한 어휘 추론	1	1	1	1	1	0	5	2.53
4	읽기	지칭 추론	2	2	3	3	3	4	17	8.59
5		글의 목적 파악	1	1	1	1	1	1	6	3.03
6		빈칸 추론	7	5	5	4	5	4	30	15.15
7		심경(감정) 추론	0	2	1	1	1	1	6	3.03
8		글의 분위기 파악	1	1	1	1	1	1	6	3.03
9		연결어 추론	1	1	1	1	1	1	6	3.03
10		주제 추론	2	2	3	3	3	2	15	7.58
11		도표의 이해	1	1	1	1	1	1	6	3.03
12		내용 일치 파악	3	3	3	3	3	2	17	8.59
13		요지 추론	2	2	2	3	2	4	15	7.58
14		제목 추론	3	2	2	2	2	2	13	6.57

15		필자의 주장 파악	1	1	1	1	1	0	5	2.53
16		글의 흐름과 무관한 문장 찾기	1	1	1	1	1	0	5	2.53
17	쓰 기	글의 순서 배열	2	1	2	2	2	2	11	5.56
18		주어진 문장의 위치 파악	1	2	1	1	1	1	7	3.54
19		문단의 요약 및 적용	1	1	1	1	1	2	7	3.54

6년 동안 가장 많이 출제된 문제 유형은 문법, 어휘, 읽기, 쓰기 영역 중 읽기 영역의 ‘빈칸 추론’ 유형으로 총 서른 번 사용되었으며, 두 번째로 많은 사용 빈도를 나타낸 것은 열일곱 번씩 사용된 ‘지칭 추론’ 유형과 ‘내용 일치 파악’ 유형이다. 이에 비하여 어휘 영역의 ‘부적절한 어휘 추론’ 유형과 읽기 영역의 ‘필자의 주장 파악’ 유형, 그리고 쓰기 영역의 ‘글의 흐름과 무관한 문장 찾기’ 유형은 6년간 총 다섯 번씩 출제되어 가장 적게 출제된 문제 유형으로 나타났다.

영역별로는 읽기 영역이 총 71.72%로 가장 많은 비중을 보였으며, 이어서 쓰기 영역이 15.15%, 그리고 문법과 어휘 영역이 각각 6.57%로 나타났다. 읽기 영역의 경우 총 12가지의 문제 유형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비중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문법 영역의 경우에는 단 한 개의 문제 유형만이 사용되었고, 어휘 영역은 2개, 그리고 쓰기 영역은 4개의 문제 유형이 사용되었다.

영역별로 문제 유형의 사용 빈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문법 영역의 ‘어법성 판단’ 유형은 2005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세 문항이 나타나 가장 많이 출제되었다. 그러나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두 문항씩 출제되어 일정한 출제 경향을 보였다.

어휘 영역의 ‘문맥상에 맞는 어휘 추론’ 유형은 2005년과 2009년 두 문항씩 출제되어 다른 해에 한 번씩 사용된 것에 비해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부적절한 어휘 추론’ 유형의 경우에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매년 한 문항씩 출제되었으나, 2005년에는 한 문항도 출제되지 않았다. 어휘 영역은 2가지의 문제 유형을 합쳐 매년 약 두 문항씩 출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2005년에는 ‘문맥상에 맞는 어휘 추론’ 유형이 두 문항에서 나타나고 ‘부적절한 어휘 추론’ 유형이 출제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부적절한 어휘 추론’ 유형은 2006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부터 적용된 새로운 문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읽기 영역의 ‘글의 목적 파악’ 유형, ‘글의 분위기 파악’ 유형, ‘연결어 추론’ 유형, ‘도표의 이해’ 유형 등 4개의 문제 유형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한 문항씩 빠지지 않고 출제되어 각각 총 여섯 번씩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네 가지 영역을 통틀어 가장 많이 출제된 문제 유형인 ‘빈칸 추론’ 유형은 매년 4~5개의 문항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2010년에는 총 7개의 문항에서 출제되어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빈칸 추론’ 유형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출제된 유형 중 하나인 ‘지칭 추론’ 유형은 4개의 문항이 출제된 2005년이 가장 높은 출제율을 보였다. 이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개씩, 그리고 2009년과 2010년에는 각각 2개씩 나타나 점차 출제 문항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지칭 추론’ 유형과 함께 두 번째로 많이 출제된 ‘내용 일치 파악’ 유형의 경우에는 2개의 문항이 출제된 2005년을 제외하고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3개의 문항에서 출제되어 출제 비중이 약간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필자의 주장 파악’ 유형은 읽기 영역 중 가장 적게 출제된 문제 유형으로 6년간 총 5개의 문항에서 나타났다. 또한 ‘필자의 주장 파악’ 유형의 경우, 2005년에는 출제되지 않았던 문제 유형이나 이후에는 매년 한 문항씩 출제되어 어휘 영역의 ‘부적절한 어휘 추론’ 유형과 마찬가지로 2006년부터 새롭게 출제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쓰기 영역의 ‘글의 흐름과 무관한 문장 찾기’ 유형도 마찬가지로 이 유형 역시 2005년을 제외

하고 매년 한 문항씩 출제되었다.

‘심경(감정) 추론’ 유형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한 문항씩 출제되었던 것에 비해 2009년에는 두 문항에서 사용되었다. 그러나 2010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4개의 영역 총 19개의 문제 유형 중에서 유일하게 출제되지 않은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주제 추론’ 유형, ‘요지 추론’ 유형, ‘제목 추론’ 유형은 매년 2~3개의 문항에서 나타나 비교적 일정한 출제 비율을 보였다. 그 중 ‘요지 추론’ 유형은 2005년에 4개의 문항에서 나타나 ‘지칭 추론’, ‘빈칸 추론’ 유형과 함께 2005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문제 유형 중 하나였다.

마지막으로 쓰기 영역의 4개의 문제 유형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유형은 6년 동안 열한 번 출제된 ‘글의 순서 배열’ 유형이며, ‘글의 흐름과 무관한 문장 찾기’ 유형은 총 다섯 번 출제되어 가장 적게 출제된 유형으로 나타났다. ‘글의 흐름과 무관한 문장 찾기’ 유형은 2005년을 제외하고 2006년부터 매년 출제되었다. 이와 달리 ‘문단의 요약 및 적용’ 유형은 2005년에 두 문항이 출제된 이후, 2006년부터는 매년 한 문항씩만 나타나 출제 문항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또 ‘글의 순서 배열’ 유형과 ‘주어진 문장의 위치 파악’ 유형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각각 2개와 1개의 문항에서 나타났다. 하지만 2009년에는 다른 해와 달리 ‘글의 순서 배열’ 유형이 한 문항, ‘주어진 문장의 위치 파악’ 유형이 두 문항에서 사용되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읽기 영역을 문제 유형에 따라 분석한 결과, 2005년에는 총 16개의 문제 유형만이 출제되어 다른 해와 큰 차이를 보였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19개의 문제 유형이 고르게 출제되었으며, 2010년에는 ‘심경(감정) 추론’ 유형이 나타나지 않아 18개의 문제 유형이 나타났다.

#### 4.1.4 이원 목적에 따른 분석 결과

2005학년도부터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읽기 영역을 이원 목적에 따라 내용 영역과 행동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내용 영역의 경우에는 장문의 지문을 포함한 총 180개의 지문을, 행동 영역은 총 198개의 문항수를 기초로 분석하였으나, 두 영역의 복합적인 분석을 위해 내용 영역 중에서 장문의 지문이 사용된 경우 그에 따른 문항수로 기준을 맞추어 두 영역을 모두 총 198개 문항수에 따라 나누어 분석하도록 하였다.

##### 1) 내용 영역

6년 동안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읽기 영역을 설명문, 논설문, 그리고 실용/기타의 3가지 유형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 이원 목적의 내용 영역에 따른 분석 결과

내용 영역	문항 수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계
설명문	13	20	12	10	8	9	72
논설문	11	6	14	16	20	14	81
실용/기타	9	7	7	7	5	10	45
계	33	33	33	33	33	33	198

총 198개의 문항 중 논설문이 81개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설명문이 72개로 뒤를 이었으며, 수필이나 일기문, 편지문, 전기문, 광고문, 소설이나 문학적인 글을 모두 포함한 실용/기타가 45개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논설문의 경우,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세 유형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

으나, 2009년과 2010년에는 설명문이 오히려 논설문보다 많이 나타났다. 이는 주관적인 글보다 객관적인 글을 위주로 하는 문항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실용/기타의 경우에는 매년 가장 적은 횟수로 출제되었으나, 2005년에는 설명문보다 한 문제 더 출제되었으며, 2009년에도 논설문보다 한 문제 더 출제되어 각각 두 번째의 빈도를 나타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총 5개 문항에서 사용된 2006년을 제외하고는 설명문이나 논설문과 달리, 7개에서 10개의 문항에서 꾸준히 사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2009년은 다른 해에 비해 설명문이 총 20개의 문항에서 사용되어 6년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으며, 논설문은 그에 비하여 겨우 6개 문항에서 사용되어 가장 적은 횟수를 기록했다. 이와 반대로 2006년에는 논설문이 20개의 문항에서 사용된 것에 비해, 설명문은 8개의 문항에서 출제되어 6년 중 가장 낮은 빈도를 보였다.

또한 2010년은 설명문과 논설문, 실용/기타의 세 가지 유형의 사용 빈도가 각각 2개씩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6년 중 세 유형의 사용 빈도에 있어 가장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행동 영역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읽기 영역 총 198문항을 본 연구의 6가지 행동 영역 분석 기준인 어휘, 문법성 판단력, 사실적 이해력, 추론적 이해력, 종합적 이해력, 적용력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표 5> 이원 목적의 행동 영역에 따른 분석 결과

행동 영역	문항 수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계
어휘	2	2	2	2	2	2	12
문법성 판단력	2	2	2	2	2	3	13
사실적 이해력	4	4	4	4	4	3	23
추론적 이해력	18	16	17	17	17	17	102
종합적 이해력	2	4	3	3	3	3	18
적용력	5	5	5	5	5	5	30
계	33	33	33	33	33	33	198

그 결과, 추론적 이해력을 측정하는 문항이 총 198개 문항 중 102개 문항으로 다른 다섯 가지 기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를 기록하였다. 이어서 적용력을 측정하는 문항수는 30문항, 사실적 이해력 23문항, 종합적 이해력 18문항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문법성 판단력 측정 문항이 13문항이었으며, 어휘를 측정하는 문항이 12문항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어휘 측정 문항은 매년 두 문항씩 꾸준히 출제되었으며, 문법성 판단력을 측정하는 문항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매년 두 문항씩 출제된 것에 비해 2005년에는 세 문항이 출제되어 보다 많이 나타났다.

이해력을 측정하는 세 유형 중 사실적 이해력 측정 문항은 2005년에는 세 문항에서만 나타났으나, 2006년부터는 꾸준히 4개의 문항에서 사용되었다. 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추론적 이해력 측정 문항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17개의 문항에서 출제되었으며, 2009년에는 가장 적은 수인 16개

의 문항에서 나타났다. 이에 비해 2010년에는 18개의 문항에서 출제되어 평균적으로 매년 17개의 문항에서 추론적 이해력을 측정하고자 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종합적 이해력 측정 문항은 2010년에 두 문항에서만 출제되어 가장 적은 횟수를 나타냈고, 2009년은 4개의 문항에서 나타나 가장 높은 빈도를 기록했다.

마지막으로 읽기 자료를 통해 이해한 바를 간접적으로 쓰기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는 적용력을 측정하는 문항은 6년간 매년 5개의 문항에서 꾸준히 출제되었다.

이러한 행동 영역에 따른 분석 결과는 문제 유형에 따른 분석 결과와 연관성이 있다. ‘문맥상의 어휘 추론’ 유형과 ‘부적절한 어휘 추론’ 유형은 행동 영역의 어휘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볼 수 있다. 또 ‘어법성 판단’ 유형은 행동 영역의 문법성 판단력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도표의 이해’ 유형과 ‘내용 일치 파악’ 유형은 사실적 이해력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분된다. 추론적 이해력을 측정하는 문항의 문제 유형으로는 ‘지칭 추론’, ‘빈칸 추론’, ‘연결어 추론’, ‘주제 추론’, ‘요지 추론’, ‘제목 추론’, ‘필자의 주장 파악’ 유형 등이 있으며, 종합적 이해력을 측정하는 문항에는 ‘글의 목적 파악’, ‘심경(감정) 추론’, ‘글의 분위기 파악’ 유형이 포함된다. 그리고 적용력 측정 문항으로는 문제 유형의 쓰기 영역에 포함된 4개의 유형인 ‘글의 흐름과 무관한 문장 찾기’, ‘글의 순서 배열’, ‘주어진 문장의 위치 파악’, ‘문단의 요약 및 적용’ 유형을 들 수 있다.

### 3) 내용 영역 및 행동 영역

이원 목적의 두 영역인 내용 영역과 행동 영역을 동시에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6> 내용 영역 및 행동 영역에 따른 분석 결과

내용 영역	행동 영역	문항 수							비율 (%)
		10	09	08	07	06	05	계	
설명문	어휘	1	2	1	1	2	0	7	3.54
	문법성 판단력	2	1	0	0	0	1	4	2.02
	사실적 이해력	3	3	3	3	3	2	17	8.59
	추론적 이해력	5	10	5	3	2	4	29	14.65
	종합적 이해력	0	1	0	0	0	0	1	0.51
	적용력	2	3	3	3	1	2	14	7.07
논설문	어휘	1	0	1	1	0	1	4	2.02
	문법성 판단력	0	1	1	1	1	2	6	3.03
	사실적 이해력	0	0	0	1	1	0	2	1.01
	추론적 이해력	9	3	11	12	14	9	58	29.29
	종합적 이해력	0	1	0	0	1	0	2	1.01
	적용력	1	1	1	1	3	2	9	4.55
실용/기타	어휘	0	0	0	0	0	1	1	0.51
	문법성 판단력	0	0	1	1	1	0	3	1.52
	사실적 이해력	1	1	1	0	0	1	4	2.02
	추론적 이해력	4	3	1	2	1	4	15	7.58
	종합적 이해력	2	2	3	3	2	3	15	7.58
	적용력	2	1	1	1	1	1	7	3.54
계		33	33	33	33	33	33	198	100

먼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총 58개의 문항에서 나타난 논설문의 추론적 이해력 측정 문항으로 29.29%를 차지했다. 두 번째로는 역시 추론적 이해력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설명문에서 총 29개의 문항에서 출제되어 14.65%로 나타났다. 그리고 설명문의 사실적 이해력 측정 문항(8.59%), 실용/기타의 추론적 이해력과 종합적 이해력 측정 문항(각 7.58%), 설명문의 적용력 측정 문항(7.07%)이 뒤를 이었다.

가장 적게 나타난 문항으로는 6년간 한 번씩밖에 출제되지 않은 설명문의

종합적 이해력 측정 문항(2009년)과 실용/기타의 어휘 측정 문항(2005년)으로 각각 0.51%에 그쳤다. 또 논설문의 사실적 이해력 측정 문항과 종합적 이해력 측정 문항도 6년 동안 각각 두 번씩 출제되어 1.01%로 두 번째로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각 행동 영역별로 좀 더 살펴보면, 먼저 어휘 측정 문항의 경우 7개가 설명문에서 나타나 각각 4개, 1개씩 출제된 논설문과 실용/기타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2005년에는 설명문에서 하나도 나타나지 않은 것에 비해, 논설문과 실용/기타에서 각각 1개씩 출제되어 설명문에서보다는 논설문과 실용/기타에서 어휘력을 측정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후의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실용/기타에서 어휘를 측정하는 문항이 한 문항도 출제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문법성 판단력 측정 문항은 총 6개의 문항이 출제된 논설문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는데, 그에 비해 2010년에는 논설문에서 한 문항도 출제되지 않았다. 오히려 설명문에서 두 문항이 출제되어 6년 중 가장 많이 나타났다.

또 사실적 이해력 측정 문항의 경우에는 총 17개의 문항이 설명문에서 나타났다. 이는 논설문의 2개의 문항, 실용/기타의 4개의 문항과 큰 차이를 보임으로써 보다 객관적인 내용의 글을 사실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을 측정하고자 한 의도를 알 수 있었다.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추론적 이해력 측정 문항은 논설문(29.29%), 설명문(14.65%), 실용/기타(7.58%)의 순서로 나타났다. 특히 설명문과 논설문의 수에 있어 큰 차이를 보였던 2006년과 2009년에는 추론적 이해력 측정의 글의 종류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논설문의 경우, 2006년에 그 수가 가장 많고 2009년에 가장 적었던 것처럼 추론적 이해력 측정 문항의 수도 2006년에는 14개의 문항에서 그리고 2009년에는 3개의 문항에서 나타나 크게 차이를 보였다. 또 설명문의 경우, 논설문과 달리 2006년에 그

수가 가장 적고 2009년에 가장 많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2006년에는 2개의 문항에서만 추론적 이해력 측정 문항이 나타났지만, 2009년에는 10개의 문항에서 나타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났다.

종합적 이해력 측정의 경우에는 다른 행동 영역 기준들과 다르게 실용/기타에서 15개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는데, 이는 설명문과 논설문의 종합적 이해력 측정 문항이 각각 1개, 2개였던 것과 큰 대조를 이룬다. 이러한 현상은 글의 분위기를 파악하거나 필자의 심경을 추론하는 유형의 종합적 이해력 평가 문항이 주로 객관적으로 내용을 서술하거나 주관적인 생각을 표현하는 글보다는 수필이나 편지글, 문학적인 글 등에서 필자가 경험한 일이나 주변 상황을 묘사하는 형태로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적용력 평가 문항은 설명문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총 14개의 문항에서 출제되었다. 그러나 논설문과 실용/기타에 있어서도 각각 9개, 7개의 문항에서 나타났으며, 6년 동안 세 유형의 내용 영역의 글에서 한번도 빠지는 일 없이 고르게 출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 4.2 담화 구조 유형에 따른 소재 및 문제 유형과 이원 목적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여섯 가지의 담화 구조 유형(시간적 순서, 열거, 원인과 결과, 비교와 대조, 정의와 예시, 문제해결)에 따라 주로 나타나는 소재와 문제 유형, 이원 목적의 내용 영역과 행동 영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였다.

### 4.2.1 시간적 순서 담화 유형

담화 구조 유형의 첫 번째로 시간적 순서 담화 유형에서 많이 사용된 소재 및 문제 유형, 이원 목적에 따른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중,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읽기 영역에서 사용된 총 180개의 지문에서 나타난 시간적 순서 담화 유형에 따른 소재 사용은 다음과 같다.

<표 7> 시간적 순서 담화 유형의 소재 분석

담화 구조 유형	소재 번호	소재	출제 빈도	비율 (%)
시간적 순서	1	개인 생활에 관한 내용	2	15.38
	2	가정생활과 의식주에 관한 내용	2	15.38
	4	주변의 사회생활과 대인 관계 등에 관한 내용	2	15.38
	6	취미, 오락, 여행 등 여가 선용에 관한 내용	1	7.69
	7	동식물, 계절, 날씨 등 자연 현상에 관한 내용	2	15.38
	8	외국인의 생활 습관, 학교생활 등 일상생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1	7.69
	12	정치, 경제, 역사, 지리, 과학, 정보	2	15.38

		통신, 우주, 해양, 탐험 등 교양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13	예술, 문학 등과 같이 심미적 심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1	7.69

6년 동안 총 13개의 지문에서 나타난 시간적 순서 담화 유형에서는 총 8가지의 소재가 사용되었다. 이들 소재는 각각 한 번, 혹은 두 번씩 나타났는데, ‘① 개인 생활에 관한 내용’, ‘② 가정생활과 의식주에 관한 내용’, ‘④ 주변의 사회생활과 대인 관계 등에 관한 내용’, ‘⑦ 동식물, 계절, 날씨 등 자연 현상에 관한 내용’과 ‘⑫ 교양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의 5가지 소재가 6년간 시간적 순서 담화 유형의 지문에서 두 번씩 사용되었다.

시간적 순서 담화 유형에서는 본 연구의 소재 분석 기준으로 사용된 총 17가지의 소재 중 9가지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6가지 담화 구조 유형들 중 가장 적은 수의 소재 사용이다. 이러한 결과는 6년간의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시간적 순서 담화 유형의 지문의 수가 다른 담화 구조 유형에 비해 가장 적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시간적 순서 담화 유형에서 많이 출제된 문제 유형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8> 시간적 순서 담화 유형의 문제 유형 분석

담화 구조 유형	문제 유형 번호	문제 유형	출제 빈도	비율 (%)
시간적 순서	4	지칭 추론	3	17.65
	5	글의 목적 파악	1	5.88
	7	심경(감정) 추론	4	23.53
	8	글의 분위기 파악	2	11.76
	12	내용 일치 파악	4	23.53
	14	제목 추론	1	5.88
	17	글의 순서 배열	2	11.76

장문의 지문을 포함한 문항의 수를 계산하여 시간적 순서 담화 유형을 문항수로 분석한 결과 총 17개의 문항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간적 순서 담화 유형에서 어떠한 문제 유형이 많이 나타났는지 살펴보니, ‘심경(감정) 추론’ 유형과 ‘내용 일치 파악’ 유형이 각각 4개의 문항에서 나타나 23.5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 뒤를 이어 ‘지칭 추론’ 유형이 3개의 문항에서 출제되어 17.65%였고, ‘글의 분위기 파악’ 유형과 ‘글의 순서 배열’ 유형이 각각 2개의 문항에서 나타나 11.76%였다. 또 ‘글의 목적 파악’과 ‘제목 추론’ 유형의 경우 각각 1개의 문항에서 나타나 총 7가지의 문제 유형을 찾아볼 수 있었다.

사건이나 행동이 발생한 순서에 따라 과거에서 현재, 미래로 글이 진행되는 시간적 순서 담화 유형의 경우, 수필이나 일기문, 기행문 등 실용문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필자의 심경을 추론하는 유형의 문제나 글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문제, 글의 순서를 시간의 흐름에 맞도록 배열하는 문제 등이 주로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재 분석 때와 마찬가지로 시간적 순서 담화 유형으로 출제된 문항이 많지 않아 총 19가지의 문제 유형 중 12가지 유형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번에는 시간적 순서 담화 유형에서 많이 사용된 글의 종류에 대해 살펴 보았다.

<표 9> 시간적 순서 담화 유형의 내용 영역 분석

담화 구조 유형	내용 영역	문항 수							비율 (%)
		10	09	08	07	06	05	계	
시간적 순서	설명문	0	0	0	1	0	1	2	11.76
	논설문	0	0	0	0	1	0	1	5.88
	실용/기타	2	3	4	2	1	2	14	82.35
	계	2	3	4	3	2	3	17	100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시간적 순서 담화 유형은 설명문이나 논설문보다 실용/기타에서 82.35%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이는 6년간 각각 한 번, 혹은 두 번 사용된 설명문, 논설문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써, 실용/기타의 경우에는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매년 시간적 순서 담화 유형의 글이 출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82.35%의 비중은 6가지 담화 구조 유형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기도 하다. 앞서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객관적 사실을 설명하거나 논리적으로 주장을 펼치는 글보다는 한 사람의 일생, 여행을 하면서 겪게 되는 일, 생활에서 경험한 일 등에 대해 시간의 흐름에 맞추어 과거부터 차례로 나열하는 형태로 시간적 순서 담화 유형이 많이 나타났다.

또한 시간적 순서 담화 유형의 지문에서 출제된 문항들이 주로 어떠한 항목에 대해 평가하고자 했는지 행동 영역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10> 시간적 순서 담화 유형의 행동 영역 분석

담화 구조 유형	행동 영역	문항 수							비율 (%)
		10	09	08	07	06	05	계	
시간적 순서	어휘	0	0	0	0	0	0	0	0.00
	문법성 판단력	0	0	0	0	0	0	0	0.00
	사실적 이해력	0	1	1	1	0	1	4	23.53
	추론적 이해력	1	0	1	0	1	1	4	23.53
	종합적 이해력	1	1	1	2	1	1	7	41.18
	적용력	0	1	1	0	0	0	2	11.76
	계	2	3	4	3	2	3	17	100

시간적 순서 담화 유형의 지문에서 출제된 문항들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매년 출제되어 41.18%의 높은 비율을 보인 종합적 이해력 측정 문항이며, 이는 6가지 담화 구조 유형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다. 이어

서 사실적 이해력과 추론적 이해력을 측정하는 문항이 각각 23.53%로 네 문항씩 출제되었으며, 어휘력과 문법성 판단력을 측정하는 문항의 경우에는 시간적 순서 담화 유형의 지문에서는 6년간 한 문항도 나타나지 않았다.

#### 4.2.2 열거 담화 유형

두 번째 담화 구조 유형으로 열거 담화 유형의 소재, 문제 유형, 이원 목적에 따라 2005년부터 2010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읽기 영역의 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열거 담화 유형에서 주로 쓰인 소재들은 다음과 같다.

<표 11> 열거 담화 유형의 소재 분석

담화 구조 유형	소재 번호	소재	출제 빈도	비율 (%)
열거	1	개인 생활에 관한 내용	4	8.89
	2	가정생활과 의식주에 관한 내용	2	4.44
	3	학교생활과 교우 관계에 관한 내용	1	2.22
	4	주변의 사회생활과 대인 관계 등에 관한 내용	3	6.67
	5	생활 습관, 건강, 운동 등에 관한 내 용	2	4.44
	6	취미, 오락, 여행 등 여가 선용에 관 한 내용	2	4.44
	7	동식물, 계절, 날씨 등 자연 현상에 관한 내용	7	15.56
	9	우리 문화, 예절, 일상생활을 소개하 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1	2.22
	11	환경 보전, 봉사, 협동 정신 등 건전 한 사고를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1	2.22
	12	정치, 경제, 역사, 지리, 과학, 정보	17	37.78

		통신, 우주, 해양, 탐험 등 교양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13	예술, 문학 등과 같이 심미적 심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2	4.44
	14	근로, 근검절약, 진로 문제 등 개인의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는 내용	1	2.22
	15	남녀평등, 인권과 민주 시민 생활 등 민주 의식을 고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2	4.44

열거 담화 유형은 17개의 소재 분석 기준 중 총 13개의 소재가 사용되어 6가지 담화 구조 유형들 중에서 가장 많은 소재 사용을 보였다. 이것은 열거 담화 유형이 분석 대상 총 180개의 지문 중에 45개의 지문에서 사용되어 가장 많이 나타난 담화 구조 유형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 중에서 ‘㉓ 교양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 총 17개의 지문에서 사용되어 37.78%로 가장 많이 출제된 소재로 나타났다. 이는 6가지 담화 구조 유형 중에서 가장 높은 출제 빈도이나, 비율상으로는 총 15개의 지문에서 사용된 비교와 대조 담화 유형이 48.39%로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열거 담화 유형에서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난 소재는 ‘㉑ 동식물, 계절, 날씨 등 자연 현상에 관한 내용’으로 총 7개의 지문에서 나타나 15.56%의 출제 빈도를 보였다. 그리고 이것은 출제된 지문의 수나 출제 비율 면에서 모두 6가지 담화 구조 유형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또 ‘㉑ 개인 생활에 관한 내용’은 4개의 지문에서 출제되어 6가지 담화 구조 유형 중 가장 높은 출제 빈도를 나타냈으나, 비율을 따져봤을 때에는 8.89%로 시간적 순서 담화 유형의 15.38%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6년간 총 3개의 지문에서 사용된 ‘㉕ 남녀평등, 인권과 민주 시민 생활 등 민주 의식을 고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의 경우에는 그 중 2개의 지문이 열거 담화 유형으로 나타나 4.44%로 6가지 담화 구조 유형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또한 열거 담화 유형에서 주로 출제된 문제 유형은 아래와 같다.

<표 12> 열거 담화 유형의 문제 유형 분석

담화 구조 유형	문제 유형 번호	문제 유형	출제 빈도	비율 (%)
열거	1	어법성 판단	4	8.70
	2	문맥상에 맞는 어휘 추론	2	4.35
	3	부적절한 어휘 추론	1	2.17
	4	지칭 추론	7	15.22
	5	글의 목적 파악	1	2.17
	6	빈칸 추론	1	2.17
	7	심경(감정) 추론	1	2.17
	8	글의 분위기 파악	4	8.70
	10	주제 추론	2	4.35
	11	도표의 이해	5	10.87
	12	내용 일치 파악	10	21.74
	14	제목 추론	3	6.52
	15	필자의 주장 파악	2	4.35
	16	글의 흐름과 무관한 문장 찾기	2	4.35
	17	글의 순서 배열	1	2.17

열거 담화 유형에는 분석 기준 19가지 중 총 15가지 문제 유형이 사용되었으며, ‘연결어 추론’, ‘요지 추론’, ‘주어진 문장의 위치 파악’, ‘문단의 요약 및 적용’ 유형 등 4가지 문제 유형은 사용되지 않았다.

‘글의 분위기 파악’ 유형, ‘도표의 이해’ 유형, ‘글의 흐름과 무관한 문장 찾기’ 유형 등은 각각 8.70%, 10.87%, 4.35%로 6가지 담화 구조 유형 중 열거 담화 유형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열거 담화 유형 중 가장 많이 사용된 문제 유형은 총 10개의 문항에서 나타난 ‘내용 일치 파악’ 유형이며,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된 것은 총 7개 문항에서 나타난 ‘지칭 추론’ 유형이었다. 이 두 가지 문제 유형은 출제 빈도수에 있어서는 6가지 담화 구조 유형 중 가장 많았다. 그러나 각각의 담화 구조 유형에서

나타난 비율을 따져보면 열거 담화 유형에서는 ‘내용 일치 파악’ 유형이 21.74%, ‘지칭 추론’ 유형이 15.22%로 시간적 순서 담화 유형의 23.53%, 17.6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이원 목적의 내용 영역에 따라 열거 담화 유형에서 사용된 글의 종류를 살펴보았다.

<표 13> 열거 담화 유형의 내용 영역 분석

담화 구조 유형	내용 영역	문항 수							비율 (%)
		10	09	08	07	06	05	계	
열거	설명문	4	6	5	6	4	3	28	60.87
	논설문	0	1	2	6	1	1	11	23.91
	실용/기타	0	0	2	1	1	3	7	15.22
	계	4	7	9	13	6	7	46	100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총 46개의 문항 중 28개 문항에서 나타난 설명문으로 60.87%의 압도적인 비율을 나타냈다. 이는 6가지 담화 구조 유형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로 설명문이 가장 많이 사용된 담화 구조 유형이 열거 담화 유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에 비하여 논설문이나 실용/기타의 경우에는 6가지 담화 구조 유형 중 각각 다섯 번째, 네 번째의 순서로 사용되어 비교적 낮은 사용 빈도를 보였다. 특히 2010년에는 총 4개의 열거 담화 유형이 모두 설명문에서만 사용되었다.

열거 담화 유형의 경우에는 글의 전개가 사건이나 상황, 사물의 특징 등을 상세히 묘사하거나 주제를 보충하는 사항들을 차례로 나열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설명문과 같이 객관성을 가지는 글이 구체적으로 여러 사항들을 열거하는 것에 있어서 다른 종류의 글보다 적합한 것으로 여겨져 설명문에서 열거 담화 유형이 많이 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행동 영역에 따라 열거 담화 유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4> 열거 담화 유형의 행동 영역 분석

담화 구조 유형	행동 영역	문항 수							비율 (%)
		10	09	08	07	06	05	계	
열거	어휘	0	0	1	2	0	0	3	6.52
	문법성 판단력	0	0	1	1	0	2	4	8.70
	사실적 이해력	3	3	2	3	3	1	15	32.61
	추론적 이해력	1	2	4	5	1	2	15	32.61
	종합적 이해력	0	1	1	1	1	2	6	13.04
	적용력	0	1	0	1	1	0	3	6.52
	계	4	7	9	13	6	7	46	100

먼저 32.61%의 비율을 나타낸 사실적 이해력 측정 문항과 추론적 이해력 측정 문항이 가장 많이 출제되었다. 특히 사실적 이해력을 측정하는 문항은 전체 23개의 문항 중 열거 담화 유형에서 15개의 문항이 사용되어 다른 담화 구조 유형에 비해 가장 많이 나타났다. 하지만 추론적 이해력을 측정하는 문항은 전체 102개의 문항 중 15개의 문항에서 사용되어 다른 담화 구조 유형들과 비교했을 때 시간적 순서 담화 유형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열거 담화 유형이 가장 많이 나타난 2007년의 경우 6가지 행동 영역에서 모두 열거 담화 유형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와 반대로 열거 담화 유형이 가장 적게 나타난 2010년에는 사실적 이해력과 추론적 이해력을 측정하는 문항에서만 열거 담화 유형이 사용되었다.

#### 4.2.3 원인과 결과 담화 유형

먼저 2005년에서 2010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읽기 영역에서 사용된 총 35개 지문의 원인과 결과 담화 유형에서는 소재 사용이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표 15> 원인과 결과 담화 유형의 소재 분석

담화 구조 유형	소재 번호	소재	출제 빈도	비율 (%)
원인과 결과	2	가정생활과 의식주에 관한 내용	1	2.86
	3	학교생활과 교우 관계에 관한 내용	2	5.71
	4	주변의 사회생활과 대인 관계 등에 관한 내용	5	14.29
	5	생활 습관, 건강, 운동 등에 관한 내 용	5	14.29
	6	취미, 오락, 여행 등 여가 선용에 관 한 내용	3	8.57
	7	동식물, 계절, 날씨 등 자연 현상에 관한 내용	3	8.57
	12	정치, 경제, 역사, 지리, 과학, 정보 통신, 우주, 해양, 탐험 등 교양을 넓 히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8	22.86
	13	예술, 문학 등과 같이 심미적 심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4	11.43
	14	근로, 근검절약, 진로 문제 등 개인의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는 내용	2	5.71
	16	정서 순화와 합리적 사고력 배양에 도움이 되는 내용	1	2.86
	17	애국심 함양과 안보에 도움이 되는 내용	1	2.86

원인과 결과 담화 유형에는 총 17가지의 소재 분석 기준 중 11가지가 사  
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열거 담화 유형과 마찬가지로 ‘⑫ 교양을 넓히  
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 22.8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는 다섯 번씩 사용된 ‘④ 주변의 사회생활과 대인 관계 등에 관한 내용’과  
‘⑤ 생활 습관, 건강, 운동 등에 관한 내용’으로 각각 14.29%를 나타냈다.

6년간의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총 세 번 나타난 ‘③ 학교생활과 교우 관계에 관한 내용’은 그 중 두 번이 원인과 결과 담화 유형에서 나타났다. 나머지 한 번은 열거 담화 유형에서 나타난 것으로 결과적으로 원인과 결과 담화 유형과 더불어 두 담화 구조 유형에서만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6년 동안 총 일곱 번 나타난 ‘⑥ 취미, 오락, 여행 등 여가 선용에 관한 내용’의 경우 그 중 세 번이 원인과 결과 담화 유형에서 나타났으며, 이는 6가지 담화 구조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으로 출제된 것이다. 그리고 6년간 매년 출제되었던 4가지 소재들 중 하나인 ‘⑬ 예술, 문학 등과 같이 심미적 심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은 총 열네 번 중 네 번이 원인과 결과 담화 유형에서 나타났다. 이것은 다른 담화 구조 유형들에 비해 높은 수치이나, 11.43%의 비율로 정의와 예시 담화 유형의 11.54%(세 개의 지문)에 비해 낮은 결과였다.

한편, 원인과 결과 담화 유형에서 출제된 문제 유형들은 다음과 같다.

<표 16> 원인과 결과 담화 유형의 문제 유형 분석

담화 구조 유형	문제 유형 번호	문제 유형	출제 빈도	비율 (%)
원인과 결과	1	어법성 판단	3	7.89
	2	문맥상에 맞는 어휘 추론	3	7.89
	3	부적절한 어휘 추론	1	2.63
	4	지칭 추론	1	2.63
	5	글의 목적 파악	2	5.26
	6	빈칸 추론	8	21.05
	7	심경(감정) 추론	1	2.63
	9	연결어 추론	1	2.63
	10	주제 추론	5	13.16
	12	내용 일치 파악	2	5.26
	13	요지 추론	1	2.63
	14	제목 추론	2	5.26
	16	글의 흐름과 무관한 문장 찾기	1	2.63

	17	글의 순서 배열	3	7.89
	18	주어진 문장의 위치 파악	1	2.63
	19	문단의 요약 및 적용	3	7.89

가장 많이 출제된 문제 유형은 21.05%의 ‘빈칸 추론’ 유형이며, 13.16%로 ‘주제 추론’ 유형이 뒤를 이었다. 총 5개의 문항에서 나타난 ‘주제 추론’ 유형과 더불어 각각 세 문항씩 출제된 ‘문맥상에 맞는 어휘 추론’ 유형과 ‘문단의 요약 및 적용’ 유형은 6가지 담화 구조 유형 중 원인과 결과 담화 유형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6년간 총 6개의 문항에서 출제되었던 ‘글의 목적 파악’ 유형의 경우에는 원인과 결과 담화 유형에서 두 문항이 출제되어 문제해결 담화 유형과 함께 가장 많은 출제 빈도를 나타냈으나, 비율로 살펴보면 원인과 결과 담화 유형에서는 5.26%로 낮은 편이었다. (시간적 순서 유형-1개 문항, 5.88%, 문제해결 유형-2개 문항, 5.56%)

원인과 결과 담화 유형에서 사용된 문제 유형은 6가지 담화 구조 유형 중 가장 많은 16가지였다. 사용되지 않은 문제 유형으로는 ‘글의 분위기 파악’, ‘도표의 이해’, ‘필자의 주장 파악’ 유형 등 3가지가 있다.

다음으로 원인과 결과 담화 유형에서 쓰인 글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았다.

<표 17> 원인과 결과 담화 유형의 내용 영역 분석

담화 구조 유형	내용 영역	문항 수							비율 (%)
		10	09	08	07	06	05	계	
원인과 결과	설명문	1	1	2	1	2	2	9	23.68
	논설문	4	2	2	4	3	2	17	44.74
	실용/기타	2	2	1	1	2	4	12	31.58
	계	7	5	5	6	7	8	38	100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논설문(44.74%), 실용/기타(31.58%), 그리고 설

명문(23.68%)의 순서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내용 영역 기준들의 비율에 있어서 다른 담화 구조 유형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차이를 보이지 않은 편이었다. 또한 설명문, 논설문, 실용/기타 중 한 종류도 빠지는 일 없이 6년간 매년 출제된 것을 알 수 있다. 즉, 원인과 결과 담화 유형에서 글의 종류가 가장 다양하게 골고루 분포되었다고 볼 수 있다.

행동 영역에 따라 분류한 원인과 결과 담화 유형은 다음과 같다.

<표 18> 원인과 결과 담화 유형의 행동 영역 분석

담화 구조 유형	행동 영역	문항 수							비율 (%)
		10	09	08	07	06	05	계	
원인과 결과	어휘	1	1	0	0	1	1	4	10.53
	문법성 판단력	0	1	0	1	1	0	3	7.89
	사실적 이해력	0	0	0	0	1	1	2	5.26
	추론적 이해력	3	2	3	3	2	5	18	47.37
	종합적 이해력	1	1	1	0	0	0	3	7.89
	적용력	2	0	1	2	2	1	8	21.05
	계	7	5	5	6	7	8	38	100

여섯 개의 행동 영역 분석 기준이 모두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추론적 이해력 측정이 총 18개 문항에서 나타나 총 비율의 거의 반 정도를 차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해결 담화 유형과 정의와 예시 담화 유형에 비해서 적은 수치였다. 또한 총 8개의 적용력 측정 문항의 경우에는 6가지 담화 구조 유형 중 원인과 결과 담화 유형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6년 동안 12개의 문항에서밖에 출제되지 않은 어휘 측정 문항은 이 유형에서 총 4개가 나타났는데, 이는 비교와 대조 담화 유형과 더불어 가장 높은 빈도이다. 그러나 비율 면에서 10.53%로 비교와 대조 담화 유형(12.12%)에 비해 낮은 결과를 보였다. 또 사실적 이해력 측정 문항은 2개의 문항에서밖에 나타나지 않아 가장 적은 빈도를 보였으나, 6가지 담화 구조 유형 중에서는 6

년간 출제된 총 23개 문항 중 15개가 나타난 열거 담화 유형과 4개가 나타난 시간적 순서 담화 유형의 뒤를 이어 세 번째로 나타났다.

#### 4.2.4 비교와 대조 담화 유형

2005학년도에서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읽기 영역에서는 총 31개의 지문, 33개의 문항에서 비교와 대조 담화 유형이 출제되었다. 그 중 위의 31개의 지문에서 나타난 소재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표 19> 비교와 대조 담화 유형의 소재 분석

담화 구조 유형	소재 번호	소재	출제 빈도	비율 (%)
비교와 대조	1	개인 생활에 관한 내용	1	3.23
	4	주변의 사회생활과 대인 관계 등에 관한 내용	1	3.23
	5	생활 습관, 건강, 운동 등에 관한 내용	3	9.68
	6	취미, 오락, 여행 등 여가 선용에 관한 내용	1	3.23
	7	동식물, 계절, 날씨 등 자연 현상에 관한 내용	1	3.23
	8	외국인의 생활 습관, 학교생활 등 일상생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1	3.23
	12	정치, 경제, 역사, 지리, 과학, 정보통신, 우주, 해양, 탐험 등 교양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15	48.39
	13	예술, 문학 등과 같이 심미적 심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1	3.23
	15	남녀평등, 인권과 민주 시민 생활 등	1	3.23

		민주 의식을 고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16	정서 순화와 합리적 사고력 배양에 도움이 되는 내용	6	19.35

총 17가지 소재 분석 기준 중 10가지의 소재가 출제되었으며, ‘⑫ 교양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 48.3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비교와 대조 담화 유형의 소재 사용 중 거의 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정치, 경제, 역사,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논하는 글이 많았던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6년 동안 매년 빠지지 않고 사용되었던 ‘⑩ 정서 순화와 합리적 사고력 배양에 도움이 되는 내용’은 비교와 대조 담화 유형에서 총 여섯 번 나타나 19.35%로 6가지 담화 구조 유형 중에서 가장 높은 출제 빈도를 보였다. 그리고 6년간 총 3개의 지문에서 사용된 ‘⑮ 남녀평등, 인권과 민주 시민 생활 등 민주 의식을 고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은 2010학년도에 비교와 대조 담화 유형으로 딱 한 번 나타났다. (나머지 2개는 열거 담화 유형으로 출제되었다.)

또한 비교와 대조 담화 유형으로 출제된 문제 유형들은 아래와 같다.

<표 20> 비교와 대조 담화 유형의 문제 유형 분석

담화 구조 유형	문제 유형 번호	문제 유형	출제 빈도	비율 (%)
비교와 대조	1	어법성 판단	5	15.15
	2	문맥상에 맞는 어휘 추론	1	3.03
	3	부적절한 어휘 추론	3	9.09
	4	지칭 추론	1	3.03
	6	빈칸 추론	5	15.15
	9	연결어 추론	3	9.09
	10	주제 추론	1	3.03
	11	도표의 이해	1	3.03

	13	요지 추론	5	15.15
	14	제목 추론	2	6.06
	16	글의 흐름과 무관한 문장 찾기	1	3.03
	18	주어진 문장의 위치 파악	3	9.09
	19	문단의 요약 및 적용	2	6.06

6년 동안의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총 33개 문항이 비교와 대조 담화 유형으로 출제되었는데, 사용된 문제 유형은 13가지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어법성 판단’, ‘빈칸 추론’, 그리고 ‘요지 추론’ 유형이 각각 5개의 문항에서 나타나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어법성 판단’ 유형은 6년간 전체 13개 문항이 출제되었는데 그 중 5개가 비교와 대조 담화 유형으로 나타나 가장 많이 사용된 담화 구조 유형으로 드러났다. 또한 ‘부적절한 어휘 추론’ 유형의 경우 6년 동안 출제된 전체 5개 문항 중 3개가, ‘연결어 추론’ 유형은 전체 6개 중 3개, 그리고 ‘주어진 문장의 위치 파악’ 유형은 전체 7개 문항 중 3개가 비교와 대조 담화 유형으로 나타나 6가지 담화 구조 유형 중에서 가장 높은 출제 빈도를 나타냈다.

그러나 ‘글의 순서 배열’ 유형은 비교와 대조 담화 유형을 제외하고 나머지 5가지 담화 구조 유형에서 모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글의 전개가 올바르게 이어지도록 하는 이 문제 유형에는 각 항목이나 상황, 사물 등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 대조하는 담화 구조 유형이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비교와 대조 담화 유형으로 출제된 문항들의 내용 영역에 따른 분석 결과를 살펴보았다.

<표 21> 비교와 대조 담화 유형의 내용 영역 분석

담화 구조 유형	내용 영역	문항 수							비율 (%)
		10	09	08	07	06	05	계	
비교와 대조	설명문	4	6	4	1	1	0	16	48.48
	논설문	3	0	4	1	4	4	16	48.48
	실용/기타	0	1	0	0	0	0	1	3.03
	계	7	7	8	2	5	4	33	100

총 33개 문항은 1개의 실용/기타를 제외하고 설명문과 논설문이 각각 16개씩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용/기타의 경우에는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한 문항이 출제되었을 뿐, 다른 해에는 비교와 대조 담화 유형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실용/기타의 사용에 있어서 정의와 예시 담화 유형에 이어 두 번째로 가장 적은 횟수이다. 이러한 현상은 일상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수필이나 편지글과 같은 글보다는 사물이나 사건의 여러 면들에 대해 객관적으로 비교, 대조하며 설명하거나 혹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써 여러 사항을 비교, 대조하는 식의 글의 전개가 더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 2005년에는 비교와 대조 담화 유형이 모두 논설문에서만 사용되었다. 그러나 2009년에는 총 33개 문항 중 논설문이 6개 문항에서만 나타나 가장 낮은 빈도를 보였던 만큼 비교와 대조 담화 유형에서 논설문은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비교와 대조 담화 유형의 행동 영역에 따른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22> 비교와 대조 담화 유형의 행동 영역 분석

담화 구조 유형	행동 영역	문항 수							비율 (%)
		10	09	08	07	06	05	계	
비교와 대조	어휘	1	1	1	0	0	1	4	12.12
	문법성 판단력	2	1	1	0	1	0	5	15.15
	사실적 이해력	0	0	1	0	0	0	1	3.03
	추론적 이해력	3	3	3	2	4	2	17	51.51
	종합적 이해력	0	0	0	0	0	0	0	0.00
	적용력	1	2	2	0	0	1	6	18.18
	계	7	7	8	2	5	4	33	100

6가지 행동 영역 분석 기준 중 추론적 이해력 측정이 총 17개 문항에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비교와 대조 담화 유형의 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러나 종합적 이해력을 측정하는 문항은 단 한 개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사실적 이해력 측정 문항도 2008년에만 한 개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6년간 총 13개 문항에서 출제된 문법성 판단력을 측정하는 문항은 비교와 대조 담화 유형의 총 5개 문항에서 나타났는데, 이는 6가지 담화 구조 유형 중에서 가장 많은 수이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어휘 측정 문항에 있어서도 총 4개의 문항에서 비교와 대조 담화 유형이 사용되어 12.12%로 다른 담화 구조 유형들과 비교하여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 4.2.5 정의와 예시 담화 유형

먼저, 다섯 번째 담화 구조 유형인 정의와 예시 담화 유형에서의 소재 사용을 살펴보았다.

<표 23> 정의와 예시 담화 유형의 소재 분석

담화 구조 유형	소재 번호	소재	출제 빈도	비율 (%)
정의와 예시	1	개인 생활에 관한 내용	1	3.85
	2	가정생활과 의식주에 관한 내용	1	3.85
	4	주변의 사회생활과 대인 관계 등에 관한 내용	6	23.08
	5	생활 습관, 건강, 운동 등에 관한 내용	1	3.85
	9	우리 문화, 예절, 일상생활을 소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1	3.85
	11	환경 보전, 봉사, 협동 정신 등 건전한 사고를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1	3.85
	12	정치, 경제, 역사, 지리, 과학, 정보통신, 우주, 해양, 탐험 등 교양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8	30.77
	13	예술, 문학 등과 같이 심미적 심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3	11.54
	14	근로, 근검절약, 진로 문제 등 개인의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는 내용	1	3.85
	16	정서 순화와 합리적 사고력 배양에 도움이 되는 내용	2	7.69
17	애국심 함양과 안보에 도움이 되는 내용	1	3.85	

6년간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읽기 영역 총 180개 지문 중 정의와 예시 담화 유형은 26개의 지문에서 사용되었다. 그 중 ‘⑫ 교양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 8개 지문의 소재로 나타나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두 번째로는 6개의 지문에서 소재로 사용된 ‘④ 주변의 사회생활과 대인 관계 등에 관한 내용’으로 6가지 담화 구조 유형 중 정의와 예시 담화 유형에서 가장 높은 출제 비율을 나타냈다. 그리고 6년 동안 총 두 번씩 사용되

있던 ‘⑨ 우리 문화, 예절, 일상생활을 소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과 ‘⑰ 애국심 함양과 안보에 도움이 되는 내용’은 정의와 예시 담화 유형에서 각각 2006년과 2005년에 한 번씩 나타났다. (나머지 한 번씩은 각각 열거 담화 유형(2007)과 원인과 결과 담화 유형(2005)에서 나타났다.) 또한 정의와 예시 담화 유형에는 총 17가지 소재 분석 기준 중 11가지의 소재가 나타나 다른 담화 유형들과 비교했을 때 평균 정도의 소재 사용률을 보였다.

다음으로 정의와 예시 담화 유형의 문제 유형에 대해 살펴보았다.

<표 24> 정의와 예시 담화 유형의 문제 유형 분석

담화 구조 유형	문제 유형 번호	문제 유형	출제 빈도	비율 (%)
정의와 예시	2	문맥상에 맞는 어휘 추론	2	7.14
	4	지칭 추론	1	3.57
	6	빈칸 추론	8	28.57
	9	연결어 추론	2	7.14
	10	주제 추론	3	10.71
	13	요지 추론	4	14.29
	14	제목 추론	4	14.29
	17	글의 순서 배열	1	3.57
	18	주어진 문장의 위치 파악	1	3.57
	19	문단의 요약 및 적용	2	7.14

6년간 총 28개의 문항에서 나타난 정의와 예시 담화 유형은 총 19가지 문제 유형 분석 기준 중 10가지의 문제 유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빈칸 추론’ 유형이 총 여덟 번 나타나 28.5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는 6가지 담화 구조 유형 중에서 가장 높은 출제 빈도를 보인 것이다. 또 ‘제목 추론’ 유형의 경우에도 정의와 예시 담화 유형으로 총 네 번 출제되어 14.29%로 다른 담화 구조 유형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그리고 역시 14.29%를 나타낸 ‘요지 추론’ 유형은 비율상 다른 담화 구조 유

형들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 총 4개의 문항에서 출제되어 문제해결 담화 유형(5개, 13.89%)에 비해 한 문항 낮은 출제 빈도를 나타냈다.

또한 정의와 예시 담화 유형의 내용 영역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5> 정의와 예시 담화 유형의 내용 영역 분석

담화 구조 유형	내용 영역	문항 수							비율 (%)
		10	09	08	07	06	05	계	
정의와 예시	설명문	3	7	1	0	1	3	15	53.57
	논설문	1	2	2	2	3	3	13	46.43
	실용/기타	0	0	0	0	0	0	0	0.00
	계	4	9	3	2	4	6	28	100

총 28개의 문항은 설명문과 논설문이 각각 15개, 13개로 나타났으며 실용/기타는 단 한 문항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처럼 실용/기타의 사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6가지 담화 구조 유형 중 정의와 예시 담화 유형이 유일하다.

정의와 예시 담화 유형이 가장 많이 나타난 2009년에는 설명문이 총 9개 문항 중 7개를 차지하여 논설문에 비해 크게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그러나 총 두 문항에서 정의와 예시 담화 유형이 사용되었던 2007년의 경우에는 설명문은 단 한 문항도 출제되지 않았으며, 논설문이 두 문항 모두를 차지하는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정의와 예시 담화 유형의 행동 영역에 따른 분석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26> 정의와 예시 담화 유형의 행동 영역 분석

담화 구조 유형	행동 영역	문항 수							계	비율 (%)
		10	09	08	07	06	05			
정의와 예시	어휘	0	0	0	0	1	0	1	3.57	
	문법성 판단력	0	0	0	0	0	0	0	0.00	
	사실적 이해력	0	0	0	0	0	0	0	0.00	
	추론적 이해력	4	8	3	2	2	4	23	82.14	
	종합적 이해력	0	0	0	0	0	0	0	0.00	
	적용력	0	1	0	0	1	2	4	14.29	
	계	4	9	3	2	4	6	28	100	

전체 28개 문항 중 23개의 문항이 추론적 이해력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나타나 다른 행동 영역 분석 기준들과 압도적인 차이를 보였다. 이는 문제해결 담화 유형(25개 문항)보다는 적은 수치이나 담화 유형별로 사용된 비율 면에서는 82.14%로 문제해결 담화 유형(69.44%)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외의 문법성 판단력이나 사실적 이해력, 종합적 이해력을 판단하는 문항은 정의와 예시 담화 유형에서 6년간 단 한 문항도 출제되지 않아 너무 추론적 이해력 평가로만 치중된 경향을 보였다. 또한 어휘를 측정하는 문항도 2006년에 딱 한 번 나타났을 뿐이고, 적용력을 측정하는 문항도 6년 동안 단 4개의 문항에 그쳐 6가지 담화 구조 유형 중 사용된 행동 영역의 평가 기준이 가장 다양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4.2.6 문제해결 담화 유형

2005년부터 2010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읽기 영역에서는 문제해결 담화 유형으로 총 30개 지문에서 36개 문항이 출제되었다. 그 중 문제해결 담화 유형 지문에서의 소재 사용에 대해 먼저 살펴보았다.

<표 27> 문제해결 담화 유형의 소재 분석

담화 구조 유형	소재 번호	소재	출제 빈도	비율 (%)
문제해결	1	개인 생활에 관한 내용	2	6.67
	2	가정생활과 의식주에 관한 내용	2	6.67
	4	주변의 사회생활과 대인 관계 등에 관한 내용	4	13.33
	5	생활 습관, 건강, 운동 등에 관한 내용	5	16.67
	8	외국인의 생활 습관, 학교생활 등 일상생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1	3.33
	10	공중도덕, 질서 등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되는 내용	3	10.00
	11	환경 보전, 봉사, 협동 정신 등 건전한 사고를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1	3.33
	12	정치, 경제, 역사, 지리, 과학, 정보통신, 우주, 해양, 탐험 등 교양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2	6.67
	13	예술, 문학 등과 같이 심미적 심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3	10.00
	14	근로, 근검절약, 진로 문제 등 개인의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는 내용	2	6.67
	16	정서 순화와 합리적 사고력 배양에 도움이 되는 내용	5	16.67

소재 분석 기준 17가지 중 문제해결 담화 유형에서는 총 11가지 소재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사용된 소재로는 각각 5개 지문에서 나타난 ‘⑤ 생활 습관, 건강, 운동 등에 관한 내용’과 ‘⑩ 정서 순화와 합리적 사고력 배양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다. ‘⑤ 생활 습관, 건강, 운동 등에 관한 내용’은 총 16.67%로 6가지 담화 구조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⑩ 공중도덕, 질서 등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되는 내용’

(10.00%)’과 ‘⑭ 근로, 근검절약, 진로 문제 등 개인의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는 내용(6.67%)’도 다른 담화 구조 유형들에 비해 높은 출제 비율을 나타냈다. 특히 ‘⑩ 공중도덕, 질서 등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되는 내용’의 경우에는 6년 동안 대학수학능력시험 총 3개의 지문에서 소재로 사용되었는데, 그 3개의 지문이 모두 문제해결 담화 유형으로 나타났다.

총 17개의 각 소재별로 사용된 담화 유형들에 대해 정리해보니, 6가지 담화 구조 유형이 모두 사용된 소재는 앞서 제시한 소재 번호 ‘④ 주변의 사회생활과 대인 관계 등에 관한 내용’, ‘⑫ 교양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⑬ 예술, 문학 등과 같이 심미적 심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의 3개로 나타났다. 또 ‘① 개인 생활에 관한 내용’은 원인과 결과 담화 유형으로는 사용되지 않았으며, ‘② 가정생활과 의식주에 관한 내용’은 비교와 대조 담화 유형에서 나타나지 않았고, ‘⑤ 생활 습관, 건강, 운동 등에 관한 내용’은 시간적 순서 담화 유형에서 출제되지 않아 이들 3개 소재는 5가지 담화 구조 유형으로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6가지 담화 구조 유형 중 4가지의 담화 구조 유형에서 나타난 소재로는 ‘⑥ 취미, 오락, 여행 등 여가 선용에 관한 내용(정의와 예시, 문제해결 담화 유형 제외)’과 ‘⑦ 동식물, 계절, 날씨 등 자연 현상에 관한 내용(정의와 예시, 문제해결 담화 유형 제외)’, ‘⑭ 근로, 근검절약, 진로 문제 등 개인의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는 내용(시간적 순서, 비교와 대조 담화 유형 제외)’, ‘⑯ 정서 순화와 합리적 사고력 배양에 도움이 되는 내용(시간적 순서, 열거 담화 유형 제외)’ 등 4개가 있다.

‘⑧ 외국인의 생활 습관, 학교생활 등 일상생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은 시간적 순서, 비교와 대조, 문제해결 담화 유형에서, 그리고 ‘⑪ 환경 보전, 봉사, 협동 정신 등 건전한 사고를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은 열거, 정의와 예시, 문제해결 담화 유형에서 사용되어 각각 3가지 담화 구조 유형에서 사용된 소재로 밝혀졌다. 또 2가지 담화 구조 유형에서만 나

타난 소재로는 ‘③ 학교생활과 교우 관계에 관한 내용(열거, 원인과 결과 담화 유형에서 사용됨)’, ‘⑨ 우리 문화, 예절, 일상생활을 소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열거, 정의와 예시 담화 유형)’, ‘⑮ 남녀평등, 인권과 민주 시민 생활 등 민주 의식을 고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열거, 비교와 대조 담화 유형)’, 그리고 ‘⑰ 애국심 함양과 안보에 도움이 되는 내용(원인과 결과, 정의와 예시 담화 유형)’ 등 4개 소재가 있다. 마지막으로 앞서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⑩ 공중도덕, 질서 등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되는 내용’의 경우에는 오직 문제해결 담화 유형에서만 나타나 단 하나의 담화 구조 유형에서만 사용된 소재로 드러났다.

한편 문제해결 담화 유형으로 출제된 문제 유형들은 다음과 같다.

<표 28> 문제해결 담화 유형의 문제 유형 분석

담화 구조 유형	문제 유형 번호	문제 유형	출제 빈도	비율 (%)
문제해결	1	어법성 판단	1	2.78
	4	지칭 추론	4	11.11
	5	글의 목적 파악	2	5.56
	6	빈칸 추론	8	22.22
	10	주제 추론	3	8.33
	12	내용 일치 파악	1	2.78
	13	요지 추론	5	13.89
	14	제목 추론	2	5.56
	15	필자의 주장 파악	3	8.33
	16	글의 흐름과 무관한 문장 찾기	1	2.78
	17	글의 순서 배열	4	11.11
	18	주어진 문장의 위치 파악	2	5.56

총 19가지 문제 유형 분석 기준 중 12가지 문제 유형이 나타났다. 먼저 ‘빈칸 추론’ 유형은 22.2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13.89%의 비율을 보인 ‘요지 추론’ 유형은 5개 문항에서 출제되어 6가지 담화 구조 유형

중 가장 높은 출제 빈도를 나타냈다. 또 ‘필자의 주장 파악’ 유형과 ‘글의 순서 배열’ 유형은 각각 3개 문항, 4개 문항에서 출제되어 다른 담화 구조 유형에 비해 많은 횟수로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 19개 문제 유형들의 담화 구조 유형을 정리하면, ‘지칭 추론’과 ‘제목 추론’ 유형은 6가지 담화 구조 유형에서 모두 나타났다. 그리고 6년간 가장 많이 출제된 문제 유형인 ‘빈칸 추론’ 유형은 시간적 순서 담화 유형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주제 추론’과 ‘글의 순서 배열’ 유형의 경우에도 각각 시간적 순서 담화 유형과 비교와 대조 담화 유형에서는 나타나지 않아 총 5가지 담화 구조 유형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4가지 담화 구조 유형이 사용된 문제 유형으로는 ‘어법성 판단’과 ‘글의 흐름과 무관한 문장 찾기’(이상 시간적 순서, 정의와 예시 담화 유형 제외), ‘문맥상에 맞는 어휘 추론’(시간적 순서, 문제해결 담화 유형 제외), ‘글의 목적 파악’과 ‘내용 일치 파악’(이상 비교와 대조, 정의와 예시 담화 유형 제외), 그리고 ‘요지 추론’과 ‘주어진 문장의 위치 파악’(이상 시간적 순서, 열거 담화 유형 제외) 등 7개의 문제 유형이 있다. 다음으로 3가지 담화 구조 유형만 나타난 문제 유형도 4개나 되었는데, ‘부적절한 어휘 추론’(열거, 원인과 결과, 비교와 대조 담화 유형에서 사용됨), ‘심경(감정) 추론’(시간적 순서, 열거, 원인과 결과 담화 유형), 그리고 ‘연결어 추론’과 ‘문단의 요약 및 적용’(이상 원인과 결과, 비교, 정의와 예시 담화 유형)이 그것이다. 마지막으로 2가지의 담화 구조 유형만을 사용한 문제 유형으로는 ‘글의 분위기 파악’(시간적 순서, 열거 담화 유형에서 사용됨), ‘도표의 이해’(열거, 비교와 대조 담화 유형), ‘필자의 주장 파악’(열거, 문제해결 담화 유형) 등 3개가 있으며, 단 한 가지의 담화 구조 유형만을 사용한 문제 유형은 없었다.

다음으로 문제해결 담화 유형의 내용 영역에 따른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29> 문제해결 담화 유형의 내용 영역 분석

담화 구조 유형	내용 영역	문항 수							비율 (%)
		10	09	08	07	06	05	계	
문제해결	설명문	1	0	0	1	0	0	2	5.56
	논설문	3	1	4	3	8	4	23	63.89
	실용/기타	5	1	0	3	1	1	11	30.56
	계	9	2	4	7	9	5	36	100

문제해결 담화 유형으로 출제된 총 36개 문항 중 23개 문항이 논설문으로 나타나 63.8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는 6가지 담화 구조 유형 중 논설문의 사용이 가장 많은 담화 유형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6년에는 논설문의 출제 비율이 다른 글보다 훨씬 높았던 만큼 문제해결 담화 유형에서도 8개 문항이나 출제되어 그러한 현상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설명문의 경우에는 2007년과 2010년에 단 2개의 문항에서만 사용되어 시간적 순서 담화 유형과 함께 가장 낮은 출제 빈도를 보였다. 설명문은 2009년에 다른 해와 비교하여 가장 높은 출제율을 기록한 것에 비해 문제해결 담화 유형으로 한 문항도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제해결 담화 유형이 2009년에 단 두 문항에서만 사용되어 가장 적은 빈도로 나타났던 것이 큰 몫을 한 것이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행동 영역 분석 기준에 따라 문제해결 담화 유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0> 문제해결 담화 유형의 행동 영역 분석

담화 구조 유형	행동 영역	문항 수							비율 (%)
		10	09	08	07	06	05	계	
문제해결	어휘	0	0	0	0	0	0	0	0.00
	문법성 판단력	0	0	0	0	0	1	1	2.78

사실적 이해력	1	0	0	0	0	0	1	2.78
추론적 이해력	6	1	3	5	7	3	25	69.44
종합적 이해력	0	1	0	0	1	0	2	5.56
적용력	2	0	1	2	1	1	7	19.44
계	9	2	4	7	9	5	36	100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은 69.44%의 추론적 이해력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6년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출제되었다. 이는 총 36개 문항 중 25개 문항으로 6가지 담화 구조 유형 중 가장 높은 빈도였다. 또한 19.44%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적용력 측정 문항은 2009년을 제외하고 매년 출제되어 총 8개 문항에서 나타났던 원인과 결과 담화 유형 다음으로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그러나 어휘 측정 문항은 6년간 한 문항도 출제되지 않았으며, 문법성 판단력(2005년)과 사실적 이해력(2010년)을 측정하는 문항은 단 한 번씩만 나타났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7차 교육과정에 따른 6년 동안의 대학 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읽기 영역 총 180개 지문, 198개 문항의 담화 구조 유형 및 소재와 문제 유형, 이원 목적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중 첫째, 담화 구조 유형에 대한 분석 결과로 6가지 담화 구조 유형 중 열거 담화 유형이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재 사용에 있어서는 ‘⑫ 교양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 압도적으로 높은 출제 빈도를 나타냈다. ‘④ 주변의 사회생활과 대인 관계 등에 관한 내용’과 ‘⑤ 생활 습관, 건강, 운동 등에 관한 내용’도 뒤를 이어 많은 수를 차지했다. 셋째, 문제 유형에 따른 분류에서는 ‘빈칸 추론’ 유형이 6년간 평균적으로 매년 5개 문항에서 출제되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서 ‘지칭 추론’과 ‘내용 일치 파악’ 유형도 비교적 많이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이원 목적에 따른 분석은 글의 종류에 따른 내용 영역과 평가 목적에 따른 행동 영역의 두 부분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먼저 내용 영역에서는 논설문, 설명문 그리고 실용/기타의 순서로 출제되었는데 논설문이나 설명문에 비해 실용/기타의 경우에는 약 반 정도밖에 나타나지 않았다. 행동 영역 분석에서는 추론적 이해력을 측정하는 문항이 총 198개 문항 중 102개 문항으로 월등히 많이 출제되었으며, 적용력과 사실적 이해력 측정 문항이 각각 30개, 23개 문항으로 뒤를 이어 나타났다.

이에 반해 담화 구조 유형 중 시간적 순서 담화 유형과 ‘⑨ 우리 문화, 예절, 일상생활을 소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 ‘⑰ 애국심 함양과 안보에 도움이 되는 내용’의 소재는 출제 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적절한 어휘 추론’, ‘필자의 주장 파악’, ‘글의 흐름과 무관한 문장 찾기’ 등 3가지 문제 유형은 2005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나타나지 않아 그 이후에

출제된 문제 유형으로써 가장 낮은 출제 빈도를 기록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2005년에서 2010년까지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읽기 영역에서 나타난 6가지 담화 구조 유형에 대해 보다 자세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6가지 담화 구조 유형을 중심으로 하여 주로 사용된 소재를 분석한 결과, 문제해결 담화 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5가지 담화 유형에서 모두 ‘⑫ 정치, 경제, 역사, 지리, 과학, 정보통신, 우주, 해양, 탐험 등 교양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문제해결 담화 유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소재는 ‘⑤ 생활 습관, 건강, 운동 등에 관한 내용’과 ‘⑩ 정서 순화와 합리적 사고력 배양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6가지 담화 구조 유형에서 어떠한 문제 유형이 많이 사용되었는지 살펴보니, 시간적 순서 담화 유형과 열거 담화 유형에서는 ‘내용 일치 파악’ 유형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러나 나머지 4가지 담화 유형에서는 ‘빈칸 추론’ 유형이 가장 많이 출제되었다.

다음으로 담화 구조 유형을 중심으로 한 내용 영역 분석 결과, 시간적 순서 담화 유형에서는 실용/기타가 가장 높은 비율로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나머지 5가지 담화 구조 유형에서는 실용/기타보다는 설명문과 논설문이 고르게 많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6가지 담화 구조 유형의 행동 영역 분석 결과, 시간적 순서 담화 유형에서는 종합적 이해력을 측정하는 문항이 가장 많았다. 이에 비해 다른 5가지 담화 구조 유형에서는 모두 추론적 이해력을 측정하는 문항이 가장 높은 빈도로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연구 결과와 같이 특정한 담화 구조 유형이나 소재, 문제 유형 등이 다른 것들에 비해 많이 사용되었다는 점은 이를 바탕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할 학생들이 다양한 학습 방법이 아니라 어느 한 쪽 방향으로만 치우치는 학습을 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된다. 따라서 학생들이 보

다 실제적인 언어를 익히고 의사소통 능력의 유창성과 정확성을 모두 향상시킬 수 있는 올바른 학습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좀 더 균형 있게 문제들이 출제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반면 선행연구(방상욱, 1999)의 열거 담화 유형, 설명문과 논설문, 그리고 추론적 이해력을 측정하는 문항 등이 다른 것들에 비해 많이 출제되었다는 결과와 본 논문의 결과가 거의 비슷하다는 점은 초기와 현재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비교적 일관성 있는 방향으로 출제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연도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도 알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경향은 수험생들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담화 구조 유형에 따라서 주로 사용되는 소재나 문제 유형, 글의 종류, 주요 평가 영역이 다르다는 것은 담화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학습자로 하여금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문항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보다 명확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영어 읽기 교육에 있어서도 단순히 문장 위주의 독해가 아닌 글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담화 구조와 글의 전개방식, 전체적 내용의 이해에 좀 더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물론 대부분의 글은 복합적인 형태의 담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담화 구조에 대한 지도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담화 구조 유형은 한정적이므로 먼저 학습자들에게 담화 구조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어떤 종류의 글이 주로 어떠한 담화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문제 유형들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독해 연습을 진행한다면 학습자들의 독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담화 구조에 대한 분석이나 연구가 부족한

현 시점에서 이에 대해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앞으로 좀 더 효과적인 읽기 교육을 위해 담화 구조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학습자들의 내용 이해에 있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부분이나 읽기 속도 향상에 관여하는지, 또 이상적인 담화 구조 교수 모형의 개발 등에 관해 지속적으로 연구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참 고 문 헌

- 교육부고시 제 1997-15호, [별책 14]. 외국어과 교육과정(I).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4).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매뉴얼 외국어(영어) 영역*.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9).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대비 학습 방법 안내*.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진완. (1988). *담화 (Discourse) 유형이 언어회상 및 이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영어와 한국어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혁린. (2009). *대학수학능력시험 분석을 통한 올바른 독해지도방법*.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 방상욱. (1999).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읽기 문제의 담화구조 분석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어경선. (2010). *2007-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 영역 독해문항 분석*.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오성삼. (1992). *문항제작의 절차와 방법*. 문항제작과 문항분석방법: 교육평가 workshop 자료집. 연세대학교.
- 오정은. (2008). *수능 외국어(영어)영역 담화 유형에 대한 학습자의 독해 전략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이은주. (2004). *영어독해평가 문항의 담화구조유형별 비교와 그 응답 반응 비교 분석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조성권. (2007). *효과적인 영어 독해지도를 위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독해문항 분석*.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Arnaudet, M. A. & Barrett, M. E. (1990). *Paragraph Development*. New Jersey: Prentice Hall, Inc.

- Carrell, P. L. (1984). The Effect of Rhetorical Organization on ESL Readers. *TESOL Quarterly*, 18(3), 441–469.
- Hillman, L. H. (1990). *Reading at the University*. Boston: Heinle & Heinle Publishers.
- Jenkinson, M. D. (1973). Ways of Teaching. In R. C. Steiger(Eds). *The Teaching of Reading*. Paris: UNESCO.
- Kintsch, W. & van Dijk T. A. (1978). Toward a model of text comprehension and production. *Psychological Review*, 85(5), 363–394.
- Langan, J., Bader, C. H., & Anton, H. F. (1992). *Improving Reading Comprehension Skills*. New Jersey: Townsend Press, Inc.
- Mandler, J. M. & Johnson, N. S. (1977). Remembrance of things passed: story structure and recall. *Cognitive Psychology*, 9, 111–151.
- McGee, L. M. (1982). Awareness of text structure: effects on children's recall of expository text. *Reading Research Quarterly*, 17(4), 581–595.
- Meyer, B. J. F., Brandt, D. M., & Bluth, G. J. (1980). Use of author's schema: Key to ninth grader's comprehension.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Toronto, March.
- Meyer, B. J. F. & Freedle, R. O. (1984). Effect of discourse type on recall.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21, 121–143.
- Mikulecky, B. S. & Jeffries, L. (1996). *More Reading Power*. New York: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 ABSTRACT

## An Analysis of the English Reading Section of the Korean Scholastic Aptitude Test, Focusing on the Different Types of Discourse Structures

Kim, Ji Sun

Major in English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topics, types of questions, kinds of texts, and evaluation purposes of the Korean Scholastic Aptitude Test(KSAT), focusing specifically on the different types of discourse structures. For this purpose, I examined 180 texts and 198 questions from the English reading section of the KSAT, from 2005 to 2010, which was designed based on changes made in the 7th Educational Curriculum.

I organized discourse structures into six categories based on the classifications used by Carrell(1984), Hillman(1990), and Langan, Bader, and Anton(1992). These categories are 'time order,' 'listing,' 'cause and effect,' 'comparison and contrast,' 'definition and examples,' and 'problem and solution.' Moreover, topics were classified into 17 categories on the basis of the topics presented by the Education Ministry, while the questions were divided into 19 categories,

including grammar, vocabulary, reading, and writing sections. In addition, for classifying the texts, three categories and six evaluation purposes were us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mong the six different types of discourse structures, 'listing' was used most frequently. The topic which appeared at the highest rate was 'enhancing the level of culture.' In addition, 'fill in the blank' was the most frequently used type of question. Finally, the most commonly used texts, from most to least common, were rhetorical writing, descriptive writing, and practical and other writing, and the most commonly used type of questions were those that checked inferential understanding.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KSAT should be designed with a broader set of questions on more varied content in order to evaluate learners' actual language skills. There was little variation from year to year, though, and this test consistency is effective for preventing confusion.

Also in this study, six discourse structures were analyzed in detail. As for the results, the topics 'lifestyle, health, and exercise' and 'purifying emotions and thinking rationally' were the most frequently used in the 'problem and solution' discourse structure. However, the topic 'enhancing the level of culture' appeared more often in the other five discourse structures. Next, for the types of questions, 'verifying correct content' was the most commonly used in the 'time order' and 'listing' discourse structures, but 'fill in the blank' was used more often in the other four discourse structures. Third, rhetorical and descriptive writing were used similarly in most of the

discourse structures, though practical writing appeared in the highest frequency in the 'time order' discourse structure. Fourth, the types of questions used most often in the 'time order' discourse structure were those that check overall understanding; however, questions that check inferential understanding showed up more often in the rest of the discourse structures.

As the results show, the topics, the types of questions, kinds of texts, and evaluation purposes differed according to the particular discourse structures. This shows that understanding discourse structures will help learners improve their reading ability and achieve better scores on the KSAT. Therefore, more intensive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on discourse structures, and greater awareness of their importance should be encouraged.